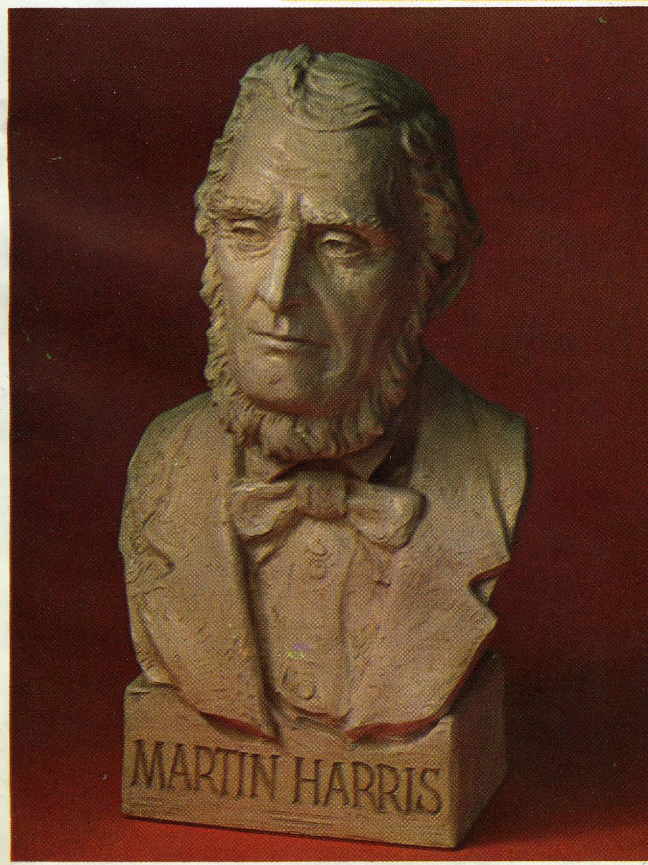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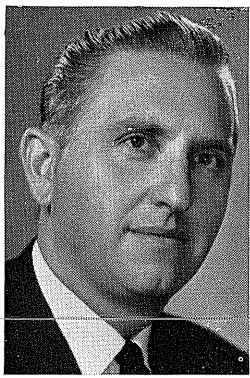


# 성도의 빛 1

1967年 10月 4日  
공보부등록 라-932





## 영감의 메시지

토마스 에스. 문슨

(12사도 정월회)

다윗을 주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성스러운 임무를 부여해 준 목자라는 정도로 기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도저히 이길 가망성도 없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저하던 싸움에 임할 용기와 신앙을 소유한 의로운 소년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는 결국 한창 힘쓰던 갓의 골리앗과 마주 싸워 이스라엘의 명예를 높이 세웠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생활을 조심스럽게 돌아보고 우리들이 가진 바 용기와 신앙을 가늠해 볼 때가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의 생활에 과연 골리앗은 없습니까? 자신이 열망하는 행복과 여러분 사이에 당당히 위세있게 서 있거나 없을까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골리앗은 담배를 피우고 싶거나 술을 못견디게 마시고 싶은 욕망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불쌍하거나 비천한 사람에게 멸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이기적인 습성이나 혹은 말을 아무렇게나 내뱉는 버릇일 수도 있습니다. 시기, 탐욕, 공포, 나태, 의심, 악덕, 자만심, 욕망, 이기심, 절망등 모든 것이 골리앗의 요소를 지닌 것들입니다.

우리들 영혼의 영원한 삶을 위한 투쟁은 그 옛날 다윗의 싸움 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적이 만만한 것은 아니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 또한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을 결정할 때입니다. 다윗처럼 우리는 의를 위한 대열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인 실패나 유혹의 재물이 되기 위하여 이 지상에 보냄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성공을 위하여 이 곳에 온 우리들로서는 거인 골리앗을 정복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1967년 10월 4일

공보부 등록 라-932

발행일 1969년 1월 1일  
(통권 제42호)

발행인 : 서 현 보

편집인 : 홍 무 광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  
(T. S. D)

전화 73-5331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한국 선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210호

인쇄소 : 삼화 인쇄 주식회사

정가 : 50원

1년 구독료(우송료 포함)

국내 450원

국의 선박 5불, 항공 7불

제5권 제1호

순서

1969년 1월호

권두언 : 가장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길 대관장 데이비드 오. 벅케이 .....	1
어둡고 비참한 전쟁속의 한 줄기 밝은 빛 골든 비. 힝크리 .....	3
몰몬경에 대한 네 증인의 간증 .....	6
관리 감독단 페이지 : 율법의 순종 .....	7
우리의 첫째 양 아미 힐리어드 젠슨 .....	9
상호 부조회 : 새해에는 무엇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	13
부역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 헬렌 힝크리 존스 .....	14
주일학교 : 생활을 변화시키기 위한 가르침 크락 디. 웨이브 .....	15
상호 향상회 : 상호 향상회의 체육 활동 계획 .....	17
진실의 출발 스테픈 알. 카비 .....	19
청소년 편 : 사마리아 사람 스잔 이스튼 .....	21
사랑의 열매 .....	22
두 개종자가 교회를 보다 에드 프로이 .....	23
돈을 벌기 위하여 얼마를 지불하겠는가? 멜빈 알. 브라인 .....	24
부록 : 제138차 반연차 대회 말씀 데이비드 오. 벅케이, 앤. 엘튼 테너 .....	25
선교부장단, 중앙지방부장단, 남부지방부장단 메시지 .....	32
내외소식 .....	35

이달의 표지 : 몰몬경에 대한 네 증인의 간증에 대한 기사의 컷을 이달의 표지로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보아서 표지의 우상이 올리버 카우드리, 좌상이 데이비드 휘트머, 좌하가 말틴 해리스, 우하가 예언자의 아내 엠마 스미스입니다. 이러한 동상은 오늘날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스코트랜드, 남아프리카, 스위스, 하와이, 런던, 로스앤젤스, 유타주의 로간과 쉘트레이크시의 교회와 방문자 센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간증을 6페이지에 실었습니다.

어린이 성도의 벗 친구를 만들어 준 기적. 바다의 놀라움  
<연속 탐정소설> 나비단의 비밀(제3회)



## 가장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길

대관장 데이비드 오. 맥케이

구세주께서는 너무도 유명한 산상 수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태 6:33)고 하셨습니다. 성서 연구가들은 여기에서 말한 “이 모든 것”은 같은 장의 앞에 있을 여러 절에 언급된 여러가지 덕성에 국한하여 설명하는 사람도 있으나 보다 더 현명하게 풀이하여 그 구절에 나타난 그대로 인간의 전체적인 삶을 뜻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 새해에 청년에게 주는 권고

새해를 맞이하여 저는 그리스도의 생애 중에 하신 몇마디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아들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에 비교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께서는 비단 자기를 따른 소수의 추종자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세상 젊은이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 도움이 될 만한 모든 것이 다 주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입니다.

저는 또한 험프리 데이비 경의 위대한 권고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큰 즐거움을 줄 수 있고 동시에 유용한 것을 고르라고 한다면 나는 다른 모든 축복 보다는 차라리 확고 부동한 종교적인 신념을 선택하겠다.”

제가 위의 말씀을 인용하는 까닭은 “가장 큰 즐거움”과 “유용한”이란 두 용어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왕국을 찾는 태도와는 정반대의 방법으로 유용한 것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한다면, 생은 동물적인 면과 영적인 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눈을 떠 주위를 살펴보면, 세상의 인간들이 영적인 면은 뒤로 하고 동물적인 방법으로 즐거움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의 경험을 바탕으로 특히 젊은이 여러분에게 삶에 있어서의 유용함, 기쁨, 즐거움, 행복은 그의 왕국을 먼저 구하라는 그리스도의 권고를 따르는 데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바입니다.

### 성공의 공식

만일 이 세 해에 제가 간절히 바라는 바를 전하라고 한다면 “가장 높은 성공이나 마음의 만족을 구하고 싶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복음의 이상을 매일의 생활에 적용해 보라”는 이야기를 꼭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주저하지 않고 자신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반드시 제가 제안한 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이상은 여러분 젊은이들을 보다 책임감 두터운 아들과 딸로, 현명한 학생으로, 보다 바람직한 동반자로, 보다 충실한 친구로, 보다 유용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미래에 갖게 될 가정의 보다 합당한 어머니 아버지로 만들어 줄 것이며, 나아가서는 이 지상에 있어서의 창조의 책임을 보다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선택한 학과나 직업에 좀더 익숙해지도록 애쓰며, 보다 유용한 사람으로 성장하여 상대방을 도울 수 있도록 애써야 하며, 자기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학과나 직업이 무엇이든 그 안에서 뛰어나야 합니다.

### 생각하는 대로 생활함

제가 학생 여러분에게 뛰어나야 한다고 강조하였지만 사실 자기가 맡은 것에서 뛰어난다는 것 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을 만드는 그 무엇을 말합니다. 보다 아름다운 여성이 되고, 인류를 위해 봉사할 남성이 되며, 사랑스러운 여성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남성에 충실할 수 있게 되는 무엇입니다. 남성으로서 가슴 깊은 곳에서 믿는 것,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갈구하는 것, 반에서, 무용하는 곳에서, 사교 활동에서, 그밖에 가정, 교회, 사회에서, 그가 관계하는 여러 활동에서 자신을 인도하여 주는 무엇입니다. 사실에 있어서 생각하는 것이 곧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는 그들의 생각부터 고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자신의 이상을 넘어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르지 못하는 경우는 있어도 결코 넘어서지는 못하는 법입니다.

이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5:16, 17)

의미심장한 말씀이 아닙니까? 바울은 계속하여 육체의

소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여기에 적어보면 :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와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찌니

(갈라디아서 5:19~25)

### 울창한 숲 속의 확실한 안내자

얼마전 저는 울창한 숲 속으로 들어가는 입구 나무에 매어놓은 노끈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 사람이 도매체 무슨 영문인가 알아보고 싶어서 따라가 보기로 했답니다. 나무 가지 위로, 관솔 나무 사이로, 열심이 쫓아가다 보니 아직도 한 손에는 노끈 문지를 들고 있는 사냥꾼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 노끈은 무엇에 쓰려느냐는 질문에 사냥꾼은 “이런 곳에서 길을 잃어 희생당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향 감각이 분해했을 때라도 온 길을 다시 찾아갈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인간이라고 하는 울창한 숲 속에 많은 적든 빠져들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방향 감각을 잃는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현명하게도 땀줄을 가지고 있어서 길을 잃거나 인간 사회의 안개 속에 깊이 파묻히는 경우에도 능히 제 길을 되찾을 수 있는 사람도 많습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이상이야말로 우리의 정박소가 아닌가 합니다. 지성보다도 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행복, 안전, 개성등은 위에 말씀드린 땀줄을 갖는 데서 비롯합니다. 매일을 이러한 이상에 따라 생활하므로 여러분의 영혼에 행복과 화평을 가져다 주는 인생의 닻—정직, 덕성, 정절등의 영적인 이상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하는 과정에서 보다 큰 행복을 맛볼 수 있음을 저는 압니다. 그저 그렇게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권고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구세주께서 보여주신 이상에 따라 생활한다면 기쁨, 행복은 여러분의 것임을 압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33)

# 어둡고 비참한 전쟁 속의 한 줄기 밝은 빛

골든 비. 힝크리  
(12사도 정원회)



다음의 기사는 1968년 4월 솔트레이크에서 있었던 제 138차 일반총회에서 행하신 힝크리 사도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맥케이 대관장님의 부활한 주님에 대한 강한 간증의 말씀을 듣고 저의 가슴은 희열과 감동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께서도 저와 함께 이 예언자의 간증을 영원히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영이 저를 격려해 주신다면 저는 간증에 관한 것을 주제로 삼아 말씀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월남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릴 바 있습니다만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그곳에 아들을 보내고 계시는 수천의 부모님들의 가슴 속에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겠기에 다시 더 몇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의 무사함을 비는 마음은 간절할 것이며 기도의 내용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다른 국가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전쟁은 우리의 깊은 관심사입니다. 누구나가 다 저 처럼 월남을 다녀온 것도 아니고 해서 그 땅의 가공할 슬픔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할 것이고 그리하여 매일의 기도에서 그 땅의 평화를 갈구하는 정도도 강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월남전도 다른 전쟁과 마찬가지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

극과 무서운 악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경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극과 죄악 속에서, 암흑과 동족상쟁의 유혈의 갈등 속에서도 한가닥 반짝이는 서광을 보았습니다. 저는 악의 흉악한 음모로부터 선을 끄집어 내려는 주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저는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의 전쟁에서도 이와 비슷한 예를 보아왔습니다만, 이 나라에서도 주님의 계획이 확대되어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사이곤에 있었습니다. 초라한 택시는 집회장소인 사이곤 지부로 가는 진흙길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때는 밤이었고 흔히 그렇듯이 적군의 손이 미치지 않는으나 소나기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의 암흑은 무서울 지경이었습니다.

집회장소에 이르는 좁은 길은 흐르는 물로 마치 강과 같았습니다. 이곳 길을 조금 올라가다보니 우산을 든 희미한 그림자가 우리를 마중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택시문을 열자 나는 그가 월남에서 제일 처음으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신권을 받은 민장로임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건물 현관에서 잠깐 지체하는 동안 민 형제는 물문경을 번역할 특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이었

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낼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지루하면서도 많은 시간을 요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자기 민족에게도 복음이 꼭 전해질 것이며 그때에 그들은 물론경에 대한 간증이 필요할 것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만들겠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영어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물론경을 읽었고, 그는 이 책을 읽으면 이와같은 영감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민 형제와 같이 저도 이 나라에는 머지 않아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있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저는 그날이 언제가 될 것인지는 모릅니다만 그날이 꼭 오고야 말 것이며, 그곳에서 군인으로 봉사하는 여러분들의 아들들이 그날을 가능케 하리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곳에 없다고 하면 적어도 반세기 이상은 더 늦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경험한 성스럽고 영감적인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가져보고 싶습니다. 1966년 10월 30일, 일요일. 200여명이 넘는 교회 회원들이 사이곤의 중심가 크라벨 호텔의 옥상에 모였습니다. 우리들은 매리온 디. 행크스 장로와 케이스 이 가너 형제와 그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영적인 집회를 가졌습니다. 예배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전에 백케이 대관장님으로부터 받은 권능으로 이땅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곳으로 헌납해야겠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헌납기도는 그날 공식모임의 일부로 주어진 것이지만 감명 깊었던 말들을 되풀이하는 것이 실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여기 인용합니다.

“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지금 전쟁이 휩쓸어 파괴되고 분쟁이 그치지 않은 이곳 월남 땅에서 오늘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왕이시며 구세주이신 당신의 아들 이름으로 이 땅에 특별한 축복을 간구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우리는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적이 하는 일로부터 선을 펴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신 것을 보아 왔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 땅에도 그와같은 당신의 영을 쏟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서로 싸우고 있는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이해 할 수 있는 영으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자녀들이므로 그들 서로가 형제들임을 인식하여 분노가 뒤

덮고 있는 이 땅의 갈등을 명예로운 해결로 이끌며 자유와 정의를 증진할 수 있게 하며, 자유를 사랑하는 그들의 기관에 자유를 약속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당신의 신권을 소유하고 있는 선량한 사람들이 많이 전쟁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있는 동안 이곳에 당신의 사업을 이룩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당신 아들의 복음을 미국인 친구들이나 월남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의 침례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당신의 일을 지상에서 행하는데 머리가 되게 기쁨부어 택하신 예언자께서 우리에게 준 권능으로 지금 이 때가 이 땅을 헌납하며 축복하기에 알맞은 때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신성한 신권의 행사를 통하여 그리고 성스러운 사도의 직분으로 이 월남 땅을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회복된 당신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헌납하여 봉헌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부터 아버지여 오시어서 성령을 통하여 이 백성들과 통치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마음 문을 열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당신 아들의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당신에게로부터 나온 이 위대한 은사와 권능과 힘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겠다는 강한, 새로운 충동을 느낄 수 있게 하여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이 들어올 수 있게 길을 열어 주시옵고, 그들의 노력이 이 백성들의 생활에 영원한 기쁨을 주며, 또 커다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옵나니, 이 거룩한 날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저희를 위하여 주신 당신의 은혜에 감사하나이다……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우리는 아직 그곳에 상주할 선교사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또 언제 보내게 될 수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정식으로 전도 형식을 갖추지는 못했으나 그곳에 파견된 민간인이나 군인들은 그 나라의 국법이나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노력으로 그 지역에서 교회는 타일랜드의 합법적으로 등록된 교회들 포함하여 몇 개의 지역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쟁으로 인하여 교회의 헌신적인 회원들이 그곳에 가지않았다면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 까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악이 범람하는 곳

에서 이들의 선한 의지를 극복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장애물 속에 있는 그들의 신앙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귀한 복음의 선물을 서로 나누어 가지려는 의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세계 각지에서 성도들이 예배장소를 짓기 위하여 받쳐온 희생에 깊은 감명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2년 전에 월남지역의 회장인 군인 형제의 제의가 보여준 반응에 대한 보고를 받고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감명으로 감동 되었습니다. 그는 십일조를 내고 있는 형제들에게 전 투수당으로 지급받고 있는 돈을 건축기금으로 헌금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일요일 단 하루에 사이곤 지부에 있는 사람들이 헌금한 금액이 3,000불이 넘었으며, 30일동안에 1만 8천불 이상이나 되었습니다. 평화를 성취하기 위한 전쟁, 그 위험한 전투의 대가로 주어지는 돈을 육군, 공군, 해병 들은 헌금한 것입니다. 전 세계를 통하여 이 보다 더한 신앙의 표시가 나타난 적이 있었겠습니까?

이곳 사람들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싸워온 그들은 자기들은 사용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어쩌면 보지도 못할지 모르나 자유의 수호를 위하여 싸워온 사람들이 쓸 건물을 위해 돈을 낸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그들을 축복해 주시며 전쟁터에서 참다운 자신들을 발견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발할 수 있는 훌륭한 신앙을 심어 키워주신 부모님 되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화평으로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군복무로 인해 선교사로 나갈 수 없어서 마음 아파하는 부모님들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스스로의 모 범적인 행동을 통해 효과적인 선교사의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통해 다소나마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의 일부분인 그곳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들을 도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의 결과로 얻어지는 원형을 아시아의 오래된 국가들인 한국, 태국, 일본, 오키나와, 비올빈등에서 보아왔습니다. 지금 이들은 2만 5천이 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언젠가는 복음이 전하여져야 할 어두운 곳에 어두움의 장막이 걸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저는 부리감 영의 흥미있는 말씀을 처음으로 읽었습니다.

“나는 동인도제도 (저는 동남아시아라고 생각합니다)와 여러 섬과 대륙의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무 식한 사람이나 유식한 사람이나 모두가 영생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들의 영원한 신권의 권능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알 수 있을 때 참으로 행복하겠습니다.”(설교집 제8권 7페이지)

저는 이 설교에서 전쟁을 변호하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하거나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복잡한 것이며 이해의 저쪽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작지만 비참한 전쟁의 암흑 속에서 희망으로 찬란히 빛나고 있는, 다시말하면 지금은 작고 약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신비스런 방법으로 강하게 되어 앞으로의 사업 설립에 교두보가 될 빛에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 놀랄만한 성도애는 전쟁의 어두운 세월과 계속되는 곤경 속에서 한번 뿌리워진 씨의 단 열매인 것입니다. 이는 신권을 가진 선한 사람들, 시민과 군인들이 모두 다같이 생활을 통한 모범으로 산 교훈의 영감을 통해 그 위에 기초를 두고 위대한 사업을 이룩한 것입니다.

이제 저는 베트남에 있는 우리의 형제로부터 온 편지를 읽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프우 베이에서 저는 기이한 업적을 읽고 있는 젊은 회원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묻는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 책은 더럽혀져 있었고 또 그의 손도 더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잡념없이 책을 읽고 있었으므로 더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위험한 정글지대를 수색하고 더러워진 전투복을 입고 마악 돌아온 피곤한 몸으로 복음을 공부하는 그 젊은 병사를 상상할 때 두가지 모습을 그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끊임없이 그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가 자라난 집이요, 또하나는 전쟁의 먹 구름이 걷히고 그 땅에 평화가 오고, 또 지금 그곳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에서 집회를 갖는 모습입니다.

그날은 올 것입니다.

저는 이를 확신합니다.

주께서 아시아에 있는 충실한 형제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어두운 시간이 지나 그들이 위대한 봉사로 주님의 말일의 왕국에 많은 영이 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해주시옵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

# 물몬경에 대한 네 증인의 간증

물몬경은 얇은 금판에 쓰여진 것으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인도될 때까지 땅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 책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보내졌으며 또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번역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네 사람의 간증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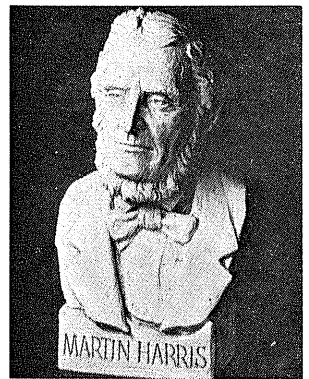
## 엠마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부인

“내가 믿는 것은 물몬경이 하나님에 의해 공인된 책이라는 것이란다. 나는 이 사실에 대하여 추호의 의심도 없단다. 나는 아무도 영감을 받지 않고서는 그 원고를 받아 쓸 수 없다는 것에 만족한단다. 내가 너의 아버지의 서기로 번역을 받아 쓸 때의 일이다. 몇 시간이고 계속해서 부르고는 하셨지. 그러다가 식사를 하신다거나 다른 일로 그 일을 중단하셨다가 다시 시작하셨을 때라도 끝 부분을 읽어 드려 확인을 받거나 하는 일 없이 끝난 부분에서 바로 시작하셨단다. 이 일은 언제나 마찬가지였지. 이것은 배웠다는 사람들이라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하물며 별로 공부도 많이 하지 않은 아버지에게서는 불가능한 일이였다……” (요셉 스미스 3세 저 “엠마 자매의 마지막 간증” 세인트 에드보케이트 제 2권 [1879. 10.] 52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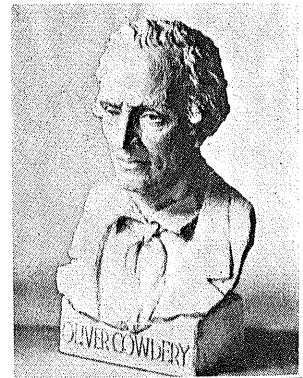
## 말틴 해리스

“나는 물몬경이 참된 것임을 안다. 나는 그 판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로 번역 되었음을 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이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확실히 그 사업이 진실임을 믿는다. 그전에 요셉 스미스와 이야기를 나눌 때 한 시간 반 동안이나 무릎에 판을 가지고 있었다. 정말이다. 나는 그랬었다. 그리고 요셉 스미스가 번역한 판 하나하나를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않았던가?” (밀레니얼 스타 제21권 545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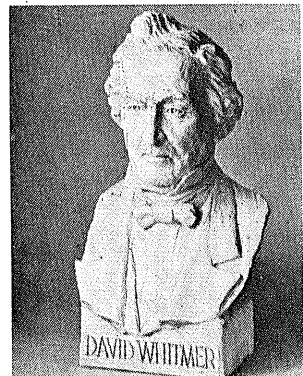
## 올리버 카우드리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능력과 은사로 물몬경을 번역할 때 그의 입술에서 말이 떨어지는 대로 물몬경 전체를(몇 장을 제외하고는) 직접 내손으로 기록했다. 이 책은 영원한 복음을 담고 있으며, 계시의 성취로 인간에게 나타난 것이다” (밀레니얼 스타 제21권 544페이지)



## 데이비드 윗트머

“1829년 6월 하순이었다. 요셉, 올리버 카우드리와 나는 같이 있었는데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그것을 볼 수 있었다. 요셉과 올리버와 나는 통나무 위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태양보다 더 거룩한 빛이 우리를 덮었다. 빛 가운데 많은 금판이 놓인 책상이 나타났으며, ……나는 이를 똑똑히 보았으며, 물몬경 판의 기록이 하나님의 권능과 은사에 의해 번역되었다는 소리를 확실히 들었다.” (밀레니얼 스타 제43권 437페이지)





<젊은이에게 주는>

관리감독단의 말씀

## 율법의 순종

존 에이취. 반덴버그

작고한 영화 제작가 쎬실 비. 데밀은 “우리는 십계명을 깨뜨릴 수가 없다. 다만 십계명에 부딪쳐 자신을 깨뜨릴 수 있을 뿐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하나님의 율법과 나라의 법을 어겨 자신을 깨뜨리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흔히 보게 된다. 교회의 목적은 손해와 비통을 막기 위한 경호자로 제정된 율법을 어기므로써 생의 파멸을 방지하는 것에 있다. 광의의 면에서 법율의 근본의 목적을 본다면 그것은 문제를 예방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발전의 이정표가 되어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는 것이다. 다음 구절은 젊은 여러분에게 익숙한 이야기일 것이다.

“나는 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과 나라를 위하여 의무를 다하겠으며 소년단 규칙을 지키겠습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육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며 지적으로 깨어있고 도덕적으로 바르겠음” 이것은 가치있고 생산적인 생애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세워진 많은 율법 중의 하나이다. 하나님과 국가의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젊은이는 “육체적으로 강하고 지적으로 깨어 있으며 도덕적으로 바를 수” 있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관여하는 활동에 직접 관계가 있는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위대한 성취를 약속할 수 없다.

사탄의 계획은 영원한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하게 된다. 카알라일은 이점을 잘 설명하고 있다. “위대한 사람들은 자신을 지배하는 모든 것에 존경할 만큼 순종하나 미미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율법의 순종은 발전의 원리가 된다. 과학자를 예로 든다면 우주를 지배하는 자연법칙을 제산에 넣지 않고서 위성을 달에 보낼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같이 우리가 죽어야 할 육체의 약점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승영의 축복을 얻는 데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야 하는 것이다. 주께서는 “무릇 창세 이전부터 변명될 수 없게 선포된 하늘의 율법이 있어 모든 축복은 이에 근거를 두나니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율법을 순종하였으므로 얻게 되는 것이니라” (교리와 성약 130 : 20~21)고 말씀 하셨다.

율법에의 순종이 발전에 필요한 반면 이에 거역하는 것이 반대의 효과를 발생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즉 퇴보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무엘 선지자에 의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은 매우 장래가 촉망되던 지도자였다. 사무엘이 사울을 백성들 앞에 소개하자 그는 “너희는 여호와와 택하신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불행하게도 사울은 자신의 자만으로 타락하여 왕으로써 자기를 구속할만한 율법은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예언자의 방울 침입하여 주님에게 번제를 지낸 적도 있었다. 사무엘은 이러한 사울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어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질지 못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사무

만일 사울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였더라면 그는 위대한 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불순종은 얼마까지 않아 오랜 동안의 우울과 고독을 초래하였다. 드디어는 기브아에서 벌어진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에서 사울은 자신의 칼에 몸을 던져 자살하였던 것이다.

오늘날 젊은이 중에는 법률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생각에 젖은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스스로를 자제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통계를 보면 성인의 범죄는 줄어드는 반면 18세이하의 청소년들의 범죄는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법률에 순종하지 않는 것의 댓가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 댓가는 때때로 투옥이라고 생각되지만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큰 죄를 지은 젊은이가 투옥되지 않고 서약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는 가장 값진 권리인 시민권의 일부를 잃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의 범죄 기록은 언제나 그를 따라 인격과 성실에 대한 의혹의 그림자 구실을 할 것이다. 여권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어느나라에서도 체류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결코 공무원이 될 수 없을 것이며, 남을 보증하는 위치에 설 수도 없을 것이며, 남의 그것도 얻을 수도 없을 것이다. 시민이기는 하면서도 투표조차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국가는 다른 젊은이에게는 다 입대를 요구하면서도 그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과 국가의 법률은 끊임없는 갈등과 제약의 원천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 않다. 이는 어린이들이 규칙에 대하여 품은 생각과 같은 성숙하지 못한 견해인 것이다. 성숙한 사람은 사람에게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죄를 범하는 것에서 오는 고통과 비통을 방지해 주며 율법을 초월하여 살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어야 할 것이다.

참된 자유란 사실에 있어서 바른 원리와 율법을 순종하는데서 생기는 산물인 것이다. 구세주의 생애에서 너무도 선명한 예를 볼 수가 있다. 그리스도보다 더 자유롭게 살았던 사람은 없었다.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는 전 인류의 가장 큰 문제인 죽어야 할 육체의 약점을 극복하였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원한 겟세마네동산과 십자가에서의 고난은 우리도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해 주었다. 또한 그리스도는 복종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 5 : 9)

교회 회원인 젊은 남녀로서의 여러분은 하나님에 순종하여야 하며, 어떠한 이유나 사조 에라도 율법에 순종하지 않도록 조장하거나 그럴듯한 사상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은 배격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국법을 범하지 않게하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는 국법을 어길 필요가 없음이니라” (교리와 성약 58 : 21)고 말씀하셨다.

악의를 품은 도전, 율법에 대한 불만 혹은 단순히 무사려한 것에 기인한다 하더라도 율법에 순종하지 않음은 역시 그 나쁜짓의 댓가를 받게되고 성숙치 못한 일면을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하나님과 국가의 율법에 순종함은 실로 성숙함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이다. 로버트 이. 리의 “복종을 배우지 않으면 참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말은 참으로 훌륭한 말이다.

최근에 아들에 관하여 어떤 아버지가 기자와 대담하는 것을 본 일이 있었다. 이것은 아들이 특별한 영예를 차지하게 되어서가 아니라 아주 큰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가진 것이었다. 기자에게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절망에 차 있음을 느낄 수 있었으며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내 생애 최악의 날입니다” 라는 것 뿐이었다.

이러한 비극은 단순히 이러한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통계로 보아 알고 있다. 이십 세기 전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에 순종하기만 했더라면 젊은이 사이의 죄와 무법의 상태 그리고 부모의 고통과 분노는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 : 12)



## 우리의 첫째 양

아미 힐리어드 켄슨

날이 저물어 어린이들은 잠자리에 들었다. 아버지가 돌아간 후 수개월 동안 대학에서의 중간시험으로 저녁을 조용히 보냈던 폴도 잠자리에 이미 들었다. 나는 등불을 낮추어 놓고 오늘 낮 감독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을 회상하고 있다. 우리는 폴이 선교사로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는데 아마도 폴은 지금 내 마음 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모를 것이다. 내가 한 말은 모두가 옳았다. “감독님, 이것은 그가 결정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아들과 같이 이 문제를 이야기 하고 기도도 해야겠어요.” 그러나 내 마음 속에서는 반항적으로 “안되요! 아직은 일러요!”를 외치고 있었다.

나는 “안되요”라고 말한 적이 없고 언제나 “네” 혹은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해 왔었다. 어쨌든 경제적인 준비는 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이 기회는 폴에게 있어서 훌륭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말아들이 멀리 간다면 수산, 빌리 그리고 죠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남편이 작고한지 얼마 안되는데 어머니가 아들을 멀리 보낼 능력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폴은 양의 첫째인 것이다. 어떻게 내가 그와 헤어질 수 있겠는가?

갑자기 이러한 생각은 나의 추억을 회상시켜 언덕위 황색 아파트에서의 봄날을 그리게 하였다. 이 봄날 이야말로 내가 교회를 찾은—교회가 나를 찾은 것인지도 모르지만—때였던 것이다.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 씨애틀에서의 일이었다. 그때 내 나이는 17살이었으며 갈색 눈의 로저라는 청년과 사랑하는 사이였다. 꼭 이곳의 날씨와 같이 변화가 많기는 하였으나 그가 나를 사랑하는지 않는지 잘 모르겠다는 바로 그 사실이 날이 갈수록 그에 대한 매력이 되었다.

우리 가족은 어머님 단 한 사람뿐이었는데 그는 우리가 살던 고향이 낡아 나는 긴 복도며 퍼진 싸우든 만이 보이는 허술한 스페인식 아파트의 관리인이었다.

어느 이른 봄날, 로저가 고등학교로 찾아와 함께 집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우리는 큰 녹색의 아파트 정문 앞에서 머뭇거리면서 수학을 전공하는 로저가 다니는 대학에서 있을 춘계행사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아직 이 행사에 나를 정식으로 초대하지는 않았지만 말의 뜻을 나를 초대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는 책을 아무렇게나 뒤로 축느려서 들고는 황색의 회철이 된 벽에 기대어 있었고 나는 층계에 앉아 있었다. 정말로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로저는 내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빈번히 나를 놀리곤 하였다. “저어 국어를 같이 수강하는 김겨라는 붉은 머리의 미인이 있는데 그리로 가고 싶단 말야.”라고 하기도 하였다. 그의 말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김겨라는 여학생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과 나의 머리는 어두운 갈색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울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늘은 그의 기분이 달랐다. 그는 대학에 관하여 이야기 하였던 것이다. “내년이 되면 제니도 대학에 갈 거 아냐. 그러면 책은 내가 갖고 갈게.”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의 붉은 어쩌다가 지어보이는 미소로 보조개가 파였으며 그가 이렇게 보일 때는 어머니께서 언젠가 말씀하시던 대로 얼굴이 조금 보기 싫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는 나의 몸에 기대면서 “제니는 내 사람이 될거야.”라고 말했다. 나의 심장은 놀라움으로 뚝 멈추는 것 같더니 다시금 두근거리면서 얼굴이 확확 달아올랐다. 바로 이때 어머니께서 녹색의 문을 열고 내다 보시며 “로저로구나”하고 웃으시며 짤막하게 말씀하시고서는 “제니야 나를 도와 주겠니? 아파트 일층을 세 놓기로 계약을 했는데 새로 이사 올 사람이 언젠 올런지 모르겠구나. 그 사람들은 그릇과 부엌 살림이 없어서 준비해 주어야 한다.”고 하시는 것이었다.

이 말이 신호라도 된 것 같이 낡은 푸른색의 닛치 자동차가 쿨러오더니 늙은 단풍나무 그늘 밑에서 멎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얼굴에 친절한 웃음을 지으시면서 나와서는 “오셨군요.”라고 말씀하시고는 우리를 소개하였다. “제니야. 이 사람은 라일 홀브룩이고, 이 사람은 빌 스미스다. 여보게들 내 딸일세. 이 청년은 로저 다니엘즈이고.”

그들이 악수를 나누고 있는 동안 나는 속으로 “잘 생겼구나”라고 생각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내가 그렇게 생각되었던 사람은 라일이라는 청년으로 검붉은 머리에 약간 애수에 잠긴듯한 눈매를 하고 있었다. 그의 태도는 매우 개방적이면서 세련되어 보였고, 나와 로저외에 다른 사람이 있거만 하여도 불안해 하는 로저가 나는 원망스럽게 생각되기 까지 하였다.

“대학에서 나와 외출 중이시군요?”라고 라일이 로저에게 물었다.

“네”하고 대답하면서 로저는 눈을 내리 깔았다.

“빌과 나는 치과를 공부하고 있어요.”하면서 라일은 나를 쳐다보면서 웃었다.

어머니가 “여보게들 차를 차고에 갖다 넣고 짐을 내려 방으로 들여놓게”하고 말씀하셨다.

차가 텅텅거리며 모퉁이를 돌아가자 로저는 번호판을 가리키며 “저 사람들은 유태주에서 온것 같은데”고 말했다.

“그래 잘 아는구나.”하고 어머니는 말씀하시고는 “빨리 서둘러야겠구나. 로저야 잘 가거라. 제니야 들어오겠니?” 하였다.

“그래요 어머니. 로저도 같이 있지 그래? 어머니께서는 너에게도 일거리를 주실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으나 나는 그가 돌아가는 것이 싫었다.

어머니가 들어가시면서 문을 확 닫았을 때 로저는 낮은 목소리로 “제니 너의 어머니가 계신데서는 편하지가 않아. 나는 오히려 집에 가는 것이 좋겠어.” 하는 것이었다. 나는 언짢은 생각이 들기는 하였으나 감추면서 “그럼 할 수 없지.”라고 대답하였다.

그는 내 손을 꼭 잡으면서 “내 다음에 찾아올게.”하고 말하더니 뒤돌아서면서 “저 두 친구들을 조심해야 할거야. 아마 그 사람들은 물론인 것 같애.”하고 덧붙여 말했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집 모퉁이를 돌아 큰길로 횡바람을 불면서 걸어 내려가고 있었다.

로저가 라일과 빌은 물론일 것이라고 한 사실은 옳았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주의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이 아파트에 거하게 된 얼마 후에 어머니께서는 “내가 대해 본 사람들 중에 저 사람들이 제일 착실한 것 같구나.”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왜 어머니께서 그렇게 느끼셨는지 알 수 있었다.

우리는 대학교 가까이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끔 학생들에게 집을 빌려 주는 경우가 있었다. 그렇게 되면 술을 먹고 떠든다가 여자를 데리고 오거나 혹은 아파트를 어질러 놓기도 했다.

라일과 빌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학교와 교회를 잘 나갔고, 빨래와 다림질도 스스로 하였으며, 집에 편지도 잘하였다. 또 식료품을 사려고 가게에 가려면 항상 어머니와 같이 가자고 했으며, 어머니는 나를 대신 차에 태워 보내곤 하였다.

이들은 토요일에 빨래를 하였는데 아파트의 빨래하는 기계는 낡은 텅텅이였지만 15분 사용하는데 마다 5센트씩 내어야 했다. 그들은 이러한 기계를 처음으로 써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는 함께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리하여 빨래가 마르느라고 습기가 가득 찬 세탁실에서 나는 처음으로 복음의 진리를 듣게 되었다.

나는 이미 물론에 관하여 역사책과 언젠가 본 영화로 조금은 알고 있었다. 나는 브리검 영과 개척자 그리고 솔트레이크에 대해서도 조금의 지식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관하여는 하나도 몰랐다. 어쨌든 “물론”이라는 말은 언제나 나에게 좀 이상한 종파로

밖에 생각되지 않았으며 “불교도”라는 말과 같이 막연한 것이었다.

“갖고 계신 종교에 대하여 말씀 해 주시겠어요?”하고 어린 아이와 같은 호기심으로 막연히 물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설명을 하여 주었다. 이때야말로 정말 놀라운 시간이었다. 금판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면 언제나 낡은 세타를 입고 빨래를 기계 사이에서 돌면서 물문경의 시작을 이야기하던 그들을 잊을 수가 없다.

나의 호기심이 채 가시기도 전에 빨래는 끝났다. “어머니를 모시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와 함께 교회에 가지 않겠어요.” 라고 라일이 말하면서 “교회에는 언제나 방문자들이 있어요. 아마 당신도 가 보시면 마음에 들거라고 생각합니다.”고 덧붙였다.

나는 일요일에 로저가 찾아온다고 하였고 때문에 하마 트면 가지 못 할뿐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너는 밤낮 그 청년 걱정이냐, 제니야? 찾아왔다가 없으면 돌아가겠지.”라고 하시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물문교회로 갔었다. 교회는 결코 낡고 초라한 미국 재향군인회 건물이었지 교회 건물로는 적합치 못했다. 그러나 내부에는 마치 진주가 껍질이 지지분한 조개 속에 있는 것 같이 빛을 내는 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처음 들어보는 찬송가였지만 좋았다.

집회는 매우 간단해서 어린 아이라도 참여하여 해 낼 수 있을 것 같았으며 나는 너무 감동을 받아서 불에서는 어느덧 눈물이 흘러 내리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집에 와있는 느낌이였다.

어머니는 말을 많이 하시지 않았지만 나는 교회에 충만한 영이 어머니도 감동시키고 있음을 알았다. 며칠 후에 어머니는 라일과 빌에게 저녁을 대접하였다. 그들이 오래 우리 방에 머무르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교회와 교회 원리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십일조 말이야. 10퍼센트를 낸다는 것은 과중한 것 같군. 물론 부자로 사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하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라일은 웃으면서 “저도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일조가 가져다 주는 축복은 돈으로 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있을 때 저는 언제나 참된 십일조란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의 첫 열매를 주님께 가져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돈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힘도 또한 같습니다.”고 대답하였다.

로저보다 열살 위인 청년에게서 이러한 말을 듣는 다니 얼마나 기특한가. 나는 그가 어떻게 생각할까하고 두려워했다. 로저와 나는 종교에 관하여 이야기 한 일이 없으며 내가 좀 심각해지면 그는 언제나 방향을 돌리곤 했던 것이다.

로저는 라일과 빌이 돌아간 저녁에 찾아왔다. “아버지의 차를 빌려 왔으니 같이 타고 나가자.”고 말할 때 내 가슴은 몹시 긴장 되었었다. 아마 학교 행사에 가자고 할

런지도 몰랐기 때문이었다.

비가 왔기 때문에 나는 자켓을 입고 어머니께서 조용히 나를 쳐다보고 계신 것을 알면서도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대충하고 뛰어 나왔다. 처음에 우리는 별 일 없이 불링을 하였다. 로저의 친구 몇 사람이 와서 같이 어울렸다. “도대체 로저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겠단 말인가?” 그들의 거치른 대화를 듣지 않으려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였다.

우니는 그곳에서 오래 지체하지 않고 절벽이 있는 높은 곳으로 차를 몰고 갔다.

이곳에서 우리는 항구의 많은 배와 이슬비를 통하여 보이는 불빛을 보고 있었다. 로저는 바싹 닦아 앉았으나 나는 라일과 빌하고 함께 했던 저녁식사와 그들이 대답해 준 질문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로저의 입에서 담배 냄새가 너무 강하게 퍼져와서 나는 그쪽으로 내 얼굴을 돌렸었다. “오늘 밤 이상한데. 그 물론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라고 그가 말했다. 그가 라일을 이야기 한다는 것을 알았다.

“바보 같은 소리 말아요.” 나는 화가나서 물려나며 “그는 공부하기에 바빠서 여자를 생각할 틈도 없어요. 그렇지만 정말 근사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교회를 위해 2년 동안 선교사로 일했단말야.”하고 말했다.

“좋아.” 차창의 오락가락 하는 창밖의 소리만 들릴뿐 침묵이 흘렀다. “그런데 할 말이 좀 있어.”하는 그의 말은 차밖의 비와 같이 차갑고 힘이 있었다.

“나는 킹거에게 학교 행사에 가자고 제의 했어. 제니에게 실감이 나지 않겠지만 정말이야.”

그리고 나서는 차를 돌려 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반쯤 잠이 깨어서도 로저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아파트까지 와서는 변명이나 인사의 말도 없이 나를 내려 놓았고 나도 자존심 때문에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자초지종 말씀 드렸다. 어머니의 예쁜 갈색 눈동자는 나에게 언짢아 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어머니는 안심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 “남자가 그 사람 하나 뿐이냐?” 그러나 나는 그렇게 쉽게 그를 잊을 수가 없었다. 손가락이 잘려 나간 손과 같이 내 마음은 쓸쓸함과 공허함이 짙어졌으며 일기와 종이 조각에 애절한 시를 적적거리곤 했다. 나는 여자 친구를 하고만 영화구경을 하고는 급히 집으로 돌아와 나를 찾는 사람이 없었는지 알아 보곤 하였다.

그리고 젊은 남녀가 손을 맞잡고 걷는 것을 보게 되면 급히 얼굴을 돌리곤 하였다.

라일은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눈치 챌 것 같았다. 어느 날 내가 집 앞길을 쓸고 있는 것을 보고는 “제니 실망하지 말아요. 그렇게 괴로워 하기에는 너무 예쁜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말이 고마워서 그에게 미소를 지었다. “다음 일요일에 어머니를 모시고 빌과 나와 함께 교회에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교회에 갔다. 이번에도 집에 있는 느낌을 느꼈다. 곧 이러한 일은 버릇이 되어 주일학교, 성찬식과 상호부조회 모임에도 나갔다. 어느 때에는 어머니와 함께 갔고 어느 때에는 교회에서 사귄 새 친구가 나를 데리러 오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 빌과 라일이 동행해 주었다. 그들은 내가 언제나 갈망하던 오빠와 같았다.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었다. 오월의 어느 일요일에 나는 수주일 동안 로저를 전혀 생각지 않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등참나무의 향기를 맡겨내 라디오로부터 울려나오는 아름다운 노래를 듣게 되었으며 나는 자신이 라일을 생각하고 있음을 인식하곤 했다.

그런데 어느 토요일 아침 복도의 편지꽂이에서 우리 편지를 주러 가려는데 라일도 편지를 찾으러 왔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체 하면서 “집에서 온 편진가요. 여자 친구에게서 온 편지겠지요?” 하며 말을 건넸다.

“그러네요. 매주일 와요.” 하며 편지에서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크게 씩웃으며 “관심이 있다는 것을 전에는 몰랐어요.”라고 대답했다.

나는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이 짧은 동안 우리는 마음으로부터의 대화를 나누었던 것이다.

그는 손수건을 꺼내어 나에게 주고 나서는 내가 눈물을 닦는 동안 창밖을 내다 보고 있었다. “제니가 알다시피 복음의 훌륭한 원리 중의 하나는 영원한 결혼이라는 거야.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의 생애를 통하여 배워온 바지. 내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도 나는 결혼상대의 여자의 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왔어. 그런데 제니가 바로 그런 여자와 유사한 점이 많기는 해.”

그는 돌아서서 갑자기 내 머리를 잡으며 “사실 그 로저라는 청년이 제니를 다시 그리워 하기 전에 제니가 교회에 나오기를 바랐어.”하고 가볍게 이야기 하였으나 그의 눈에는 불안의 빛이 없지는 않았다.

물론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일이 나에게 그렇게 친절히 대해 주었기 때문에 라일에게서 거절을 당한다는 것은 로저에게서 당했던 것보다 더욱 창피했었다. 그러나 내가 라일 때문에 혹은 내 자만심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면 이는 곧 내가 느끼기 시작한 귀중한 무엇을 잃는 것과 같이 생각되었다.

이렇게 몇날이 지나 갔다. 나는 내가 기록하고 싶은 것과 규명해 보고 싶은 여러가지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일기를 썼던 것이다. 이러한 상태로 얼마를 지내고 나니 나는 정말로 라일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단지 내가 앞으로 어느 날 배우자로 택하고 싶은 형의 사람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로저에 대하여서는 잘 몰랐다. 때때로 라일을 생각하기는 하였지만 이것은 이제 겨우 치유된 상처를 조심스레 만지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저녁 그가 찾아왔다. 나는 그가 어떻게 전과 똑 같이 행동할 수 있는지를 의심해 보았다. 그것은 토요일 저녁 식사를 한 후였는데 그는 뎀스를 같이 하러가

자는 것이었다. 그는 뒷 주머니를 툭툭치며 옛날같이 매력적인 웃음을 띄우면서 “번덕이 좀 있지?” 하는 것이었다.

나는 “미안하지만 다른 일이 좀 있는데.” 하고 대답하였다.

그는 한쪽 눈을 치켜뜨더니 “이봐, 제니. 그동안 찾아오지 않아서 미안해. 킹거는 데리고 나가 본 적이 없어. 지금 생각해 보니 아랫층에 있는 친구를 좀 시키했던 모양이야.” 하고 이야기하는 짙은 눈썹의 그의 눈은 아직까지도 나를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

잠시 동안 나는 동요하였다. 한 달 전만 하여도 이것은 나에게 큰 의미를 가졌을 것이다. 나는 울고만 싶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늦었다. 그가 제의하는 것은 진주를 본 사람에게 성계를 내미는 것과 같은 위치에 지나지 않았다. 이제 어떻게 성계로서 만족하여 행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

“미안해요. 나는 오늘밤 상항회 특별 모임에 나가야해요. 보시다시피 나는 말일성도가 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하여 우리는 서로 작별인사를 나눈 후 로저는 긴장한 미소를 조금 지어 보였는데 이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

세월은 많이 흘렀고 회상도 흥미가 없이 되었다. 내일 이면 감독이 나를 방문할 것이며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 지금 나는 자신에게 만일 라일 홀브룩을 몰랐다면 내 생애는 어떻게 되었을가를 자문해 본다.

나는 결코 로저와는 결혼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한때 나는 인생이란 결국 어떻게 해서라도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강과 같다고 생각했다. 어떠한 길을 택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러나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었다. 원래의 궤도를 벗어난 가는 물줄기는 말라 버리거나 고인 웅덩이로 끝나 버리고 말기도 하니까.

이러한 생각으로 내 마음은 라일 홀부룩과 그와 같은 청년들을 세상에 보내어 복음을 가르치게 하는 교회에 감사함으로 가득 차있다. 왜냐하면 내가 남편을 만난 것도 교회였으며 지상에서만이 아니고 영원한 결혼을 한 것도 교회였기 때문이었다.

× × ×

이제 우리의 첫째 양에 대한 부름이 온 것이다. 아들이 가져다 줄 복음을 갈망하는 사람이 어느 곳엔가 있지 않을까?

만일 있다면 풀은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할 것이다. 주께서는 내 아들에게 20년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에 대한 대가로 2년을 돌린다는 것은 긴 것이 아니다.

감독이 방문할 때 풀은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할 것이며 나로서도 로저에게 작별 인사를 한 날 저녁에 이미 정한 바 있는 것이다.



## 새해에는 무엇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 화평을 원하십니까?

그러자면 자신의 영을 평화롭게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혼란과 무질서와는 거리가 먼 평온의 천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주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즐길 수 있도록 그 뜻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기쁨을 원하십니까?

그러자면 선을 좇고 계명을 생활함에 따른 행복이 여러분 주위 환경에서 빛을 발하도록 하십시오. 인간이 존재함은 기쁨을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기쁨에 넘치도록 하는 책임을 이해하면서 이 은총을 받아들이십시오.

### 사랑을 원하십니까?

그러자면 사랑스럽고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되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면서 두려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로 사랑의 힘을 크게 하십시오. 사랑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은총을 받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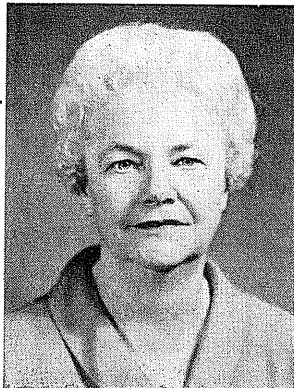
### 시간을 원하십니까?

그러자면 시간, 분, 심지어는 초까지도 현명하게 활용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희망하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시간은 우리 자신이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은총을 받아들이십시오.

### 기회를 원하십니까?

그러자면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처한 가능성에 먼저 눈을 돌리십시오. 만일 개인적 발전을 기하고 싶으시다면 시야를 넓히고 아울러 공부하고 관찰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최선의 방법으로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기회의 은총을 받아들여 바라는 바를 이루도록 노력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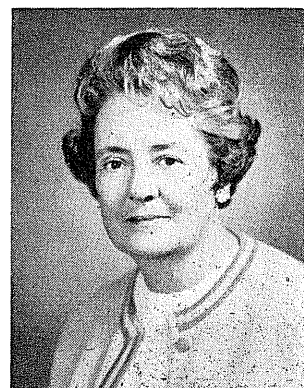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자신이 바라는 바가 새해에는 이루어 지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화평, 즐거움, 시간, 그리고 기회는 물론 여러분이 마음 속으로 바라는 모든 의로운 소망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깃들기를 바랍니다.



마리안 씨. 샤프



벨 에스. 스페포드



루이스 더블유. 마드슨

젤로 사라다가 “준비되지 않은 날” 스테이크 건물 부엌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타임 로즈마리와 오레가노; 향긋한 사과 사이다와 진저 에일로 만든 펀치- 이 펀치 위에는 알이 큰 딸기가 뚱뚱 떠다니고 있었다; 부드럽고 하얀 캔디; 빠다를 발라 구운 부드러운 피컨 과자 등은 모두가 준비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음식도 90사람의 자매가 2시간내에 점심을 먹어야 하고 더구나 사라다는 대접에 담아서 스푼으로 떠 먹어야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 부엌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

헬렌 힝크리 존스

“사라다가 요리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속삭이는 말은 모든 계획을 뒤집어 놓는 것 같았다. 이 점심은 중요한 것이었다. 스테이크 상호 부조회에서는 마지막 지도자 모임을 끝낸 후 와드의 역원과 교사를 위로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었다.

사라다는 완전하게 보였다. 예쁜 새우 색깔에 누구나 알다시피 작은 통새우, 신 크림, 다진 실파를 넣었으며 다른 파티 음식도 넣었다. 그러나 12냄비에 담긴 사라다를 흔들어서 보거나 잘 섞었는가를 칼로 조사해 보려던 사람은 한결같이 “사라다를 망쳤다”는데 생각이 일치되었다.

얼음덩이를 넣었다고 해서 맛이 날 것 같지는 않았다.

“밖에서 상치와 고등어를 좀 사서 빨리 사라다를 간단하게 만드는 것이 어떻겠어요?” 하고 셸리 자매가 말했다.

약간의 주저와 창피함에 고개를 들지 못하던 요리를 실패한 자매의 이야기였다. 이 자매는 음식을 가끔 망쳐본 경험이 있었다. 케라틴 디저트가 엉켜 굳게 되지 않게 되면 펀치 베이스로 과자와 함께 먹도록 하였으며, 커스타프 푸딩 타피오카 혹은 사과가 두껍게 되지 않으면 시럽이 없는 복숭아 켄의 국물로 대용했던 것이다. 과자가 너무 길게 되면 이것을 네모로 잘라서 설탕가루를 뿌렸고, 너무 건조하게 되면 김을 쏘이고 레몬 소스와 함께 푸딩으로 먹도록 하였다. 쇠고기를 썰어 구었는데도 아직 익지 않은 곳이 있으면 다시 얇게 베어서 각 조각에 바베큐 소스를 흠뻑쳐서는 고기굽는 판에 구어 먹었다. 그러나 사라다가 굳지 않은 것은 큰일이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상추를 붉은 것으로 사오시고 물에서 나는 냉이나 그외에 장에서 좋은 채소를 사오세요. 채소를 잘게 썰어 잘 섞은 후에 톱학(식사후에 먹는 음식 과자)으로 먹으면 되요”하고 그 자매가 제의 하였다.

“이제 모두 가서 개회순서에 참석하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과 같이 행동합시다.”하고 제스민 자매가 말했다. 그들은 이를 약속대로 시행했다. 이틈에 한 자매는 채소를 사러 장으로 급히 달려갔다.

“사라다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해 주지 맙시다”하고 셸리자매는 모든 자매에게 다짐을 받았다. 그러나 물론 이렇게 좋은 비결이 숨기어 질 수만은 없었다.

“이것은 내가 먹어본 것 중에 가장 맛있는 사라다 인데요. 사라다를 얼마나 잘 요리 하였으면 이렇게 될까? 요리하는 방법을 좀 알 수가 없을까요?” 하고 사라다를 먹어본 자매들은 누구나 한마디씩 하였다.

훌륭한 성공이었으며 처음에 기대했던 굳은 젤로 사라다보다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실패를 성공으로 이끌려면 우리는 요리가 잘 못된 사라다를 몇번은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위치에 처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의 독창성은 사라져 없어지고 말 것이다.

대다수의 중요한 과학적 발견은 작은 실수를 통하여 방법이나 구성이 조금 달라질 때 생긴 것이며 또한 제품도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제조되는 것이다.



# 주일학교 페이지

## 생활을 변화

## 시키기 위한 가르침



크릭 디. 웨이브

예수님께서서는 약 2천년 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라야 들어가리라.”(마태 7장21절)

1905년 데이비드 오. 맥케이께서 웨버 스테이크 주일학  
교 보좌였을 때 공과의 내용을 생활에 적용하도록 돕는  
문제에 관하여 쓴 적이 있다. 그는 “선이 무엇이라는 것  
을 아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  
하여야 합니다”라고 말씀했었다. 63년이 지난후 심리학자  
빅타 비. 크레인은 표본이 될만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말  
일 성도를 포함하여) 의면에 나타나는 종교적 행동이 진정  
기독교인의 자비에 대한 행위와는 “거의 무관하다”라고  
말하고 만일에 어른이나 아이가 배운 것을 행동으로 옮겨  
놓지 못하거나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를 생활의 향상  
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 우리들 교사의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말이 함축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즉 우리를 구원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고 우리에게 알려진 이러한 지식을  
복음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은  
반원들이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것에 따라 생활하도록 도  
움을 주고 있는가? 이 말씀을 보충하기 위해 “행동으로  
의 길”이라고 하신 맥케이 대관장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여러분이 학생들을 잘 이끌 수 있는 확실한 길을 제시하  
고져 한다.

모든 학습은 세 단계를 거쳐서 일어나는 것 같다. 즉 경  
험, 생각, 행동 이다.

먼저 우리는 감각을 통하여 영향을 받는다. — 보고, 듣  
고, 웃고, 시험해 보고, 만지고, 찾아보고, 의논하고, 사

실을 종합한다. 또한 우리는 탐구한다. 다음에 이런 경험  
에 대하여 생각을 한다. 즉 토론하고 가치를 평가하고 자  
문을 의뢰하고 기도하고 목적을 정하고 하나님의 격려를  
듣고 영적가치를 내면화한다. 그런 다음 우리는 생각을  
정한다. 마지막으로 생각한 바와 배운 바 원리를 적용한  
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실행해야 할 기회를 포착한  
다. 열성적으로 이행하고 적당한 곳에서 참으며 우리들이  
옳다고 믿어지는 것에서 실행한다.

공부하는데 있어 제 3 단계 응용을 강조하는 것은 생도  
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데” 도움을 준다. 공과의 목  
표를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데 그치지 말고 반원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시범함으로 실행하도록 두어야 한다.  
가끔 교사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고 있어 자기  
들이 하고있는 교수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믿는다.  
그러나 생활을 변화시키는 가르침과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보자. 교사가 공과의 결론을 내린다—다음 페이지에 있  
는 두 방법의 차이점을 살펴보자.

지식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은 대개가 교사가 바라는 이  
해의 정도를 학생이 납득 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말에 의  
존하게 된다. 그러나 생활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은 일정한  
사실의 전달은 물론 이를 행동에 옮기도록 하며 실제생활  
에 적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이다. 행한다는 것이 개입될  
때 진정한 의미의 가르침을 이야기 할 수 있다.

생활을 변화하게 하는 가르침을 원하는 교사는 “내가 가  
르치려고 애쓰고 있는 이 개념을 이해한 반원이 과연 어  
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자문하여 보게 된다.  
즉 기도나 회개 혹은 신전결혼이나 신권의 능력 또는 다  
른 복음의 개념을 이해하는 말일성도가 이러한 사실을 모

### 지식을 변화시킴

1. “형제님들, 우리는 친구를 도와 주어야 합니다.”
2. “우리는 전체 가족회의를 가져야 합니다.”
3. “우리는 예배가 복음의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임을 알아야 합니다.”
4. “소년소녀 여러분, 부모님께 복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시겠지요?”

### 생활을 변화시킴

1. “형제님들, 자 이제 우리는 서로 도우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하십니까?”
2.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가족 기도회를 갖고 있지 않다면 바로 오늘 저녁부터 그것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지 않으시렵니까? 오늘 저녁에 가족들과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습니까?”
3. “케티, 봉사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 주일에는 무엇을 하렵니까?”
4. “어린이 여러분, 우리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말해주세요...자 이제 이번 주일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할 일을 두가지씩 말해보세요.”

르는 사람이 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반원들이 행동함으로써 바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것은 학생들이 내용을 말할 수 있다고 해서 그들이 다 배웠다고 믿는 교사의 풍조를 무색하게 만들 것이다. 기도나 순종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능력이 곧 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거나 순종적인 사람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실재를 표상하

는 상징에 지나지 않는다. 즉 그것은 교회의 가르침, 실제 그 자체는 결코 아닌 것이다.  
 우리의 종교는 생각만하는 종교가 아니다. 이것은 행함인 것이다.  
 다음 달에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공과를 위해 어떻게 목표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말 하겠다.

## 1월 성찬식 전주곡



### 1월 성찬식 성경 봉독

#### 장년주일학교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다(모세 1:39).

#### 유년주일학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태 22:39).

### 1월 성구암송 및 이분반

- |     |                 |                      |
|-----|-----------------|----------------------|
| 9일  | 마 17:11~13(벧세지) | 엡 2:19~20(요한)        |
| 10일 | 신앙개조 1조(야고보)    | 마 21:21~22(기초교리)     |
| 19일 | 요 10:14~16(벧세지) | 니산 15:16, 17, 21(요한) |
| 26일 | 눅 6:36~38(야고보)  | 마 6:5~8(기초교리)        |



## 상호 향상회의 체육 활동 계획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균형된 생애를 갖도록 가르친다. 물론 이 균형 속에서 얻어야 하는 주된 요소는 휴식과 운동경기에 참여 함으로 얻을 수 있는 육체적인 발전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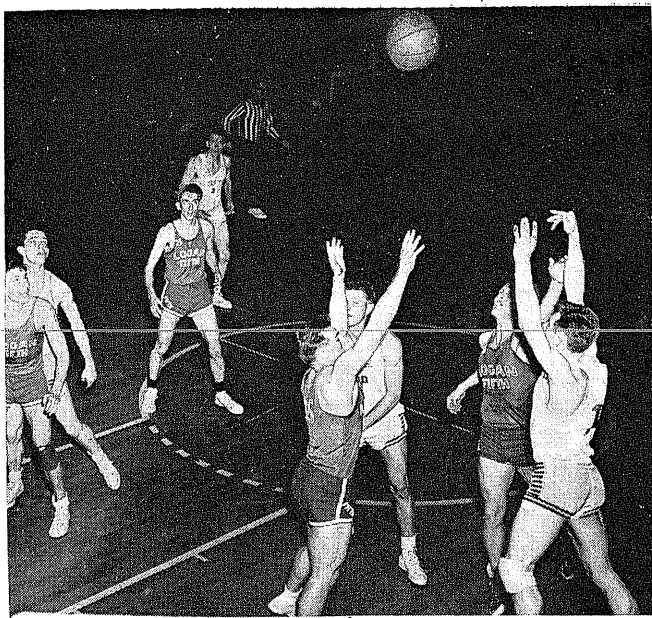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것은 팀과 시합에 있어서의 개인적인 운동정신이다.

솔트레이크 시에서는 해마다 전체 교회 운동경기로서 연식야구, 소프트볼, 농구, 배구, 골프 등 여러분에게 적합한 운동경기를 갖는다.

이 전체 운동경기에는 여러나라에서 선수들이 참가하기도 한다.

상호 향상회의 주요 목표 중의 하나를 영적으로 준비된 오락으로서 달성하기 위하여 세계 각처에서 조직적인 시합이 열리게 된다. 어디에서나 상호회가 조직되면 그 지방 특유의 운동시합이 있게 마련이다.

조사표에 의하면 최근 몇해 동안의 체육활동에 의해 일년에 천여명이 개종을 하며 이천여명이 새로 교회에 참석하게 된다는 것이 알려졌다. 비회원들은 교회의 젊은이들의 영적이면서도 활동적인 것에 감명을 갖게 된다. 각 팀과 각 개인은 엄격한 운동정신의 규율과 코치와 역원들의 집행과 진행에 있어 높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회기 동안 이천여 팀에 이만여명에 달하는 선수들이 야구 한 종목에 참가하였다.

다음은 지난 전 교회 야구시합에 관련된 스테이크 회장이 쓴 편지의 한 구절이다.

“금요일 저녁, 우리팀이 우승을 빼앗긴 후 우리 선수들의 쟁의실에 여러분이 같이 있었더라면 정말 위대한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선수들은 실망했습니다만, 누구에게 원망하거나 서로 잘못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와드나 스테이크를 대표해서 출전할 수 있었던 것과 친구로서 서로 만날 수 있었던 기회를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코치는 ‘여러분 잘했습니다. 우리는 더 잘하는 팀에 졌습니다만 우리는 훌륭한 시간을 가졌고 이 시합에 와서 함께 시합을 할 수 있었던 특권과 서로의 우정이 더욱 돈독해 졌음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시합때마다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며 훌륭한 운동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를 하고 시작하였습니다.”



상향회의 모든 체육활동은 어느 곳에서나 흥미롭게 진행되며 열광적인 지도자를 갖게 마련이다. 청남 상향회 본부에는 각 곳에서 체육 활동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갖추며 세계의 어느 곳에서나 통용되는 규칙을 정한다. 그들은 벌써 기본적인 규칙과 표준 그리고 순서를 진행하는데 제반 절차를 다 마련해 놓았다. 선교부나 스테이크의 담당 역원이 원하면 자세한 설명서를 받을 수 있다. 누구나가 다 경쟁의 드릴을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주목할만 한 것이다. 소년의 키가 제일 커야만 되거나 또 제일 잘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다. 교회의 회원이 아니어도 참가할 수 있다.



미국의 유명한 체육협회의 한 임원이 우리 교회 경기를 보고 말하기를 “이렇게 신사적인 선수들이 참가하는 리그전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다.”라고 했다.

종교적인 면에 별로 흥미를 보이지 않는 젊은이들이 체육 활동을 통하여 교회에 감화를 받을 수 있게 되며 그들이 원하는 바를 줌으로써 그들이 참으로 행복한 생활에 필요한 바가 무엇인가를 일깨워 그들 스스로가 인식할 수 있도록 것이다.

이 계획은 확실히 젊은이들을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의롭게 살려고 하는 욕망과 간증을 발전시키는데 조력하고 있다.

# 사마리아 사람

스잔 이스트



갑자기 날씨가 추워진 어느 늦은 가을 날이었다. 일요일 아침이었는데 나는 어름있는 곳을 피하며 운전하여 교회로 가고 있었다. 나의 숨길은 창문에 다아 서릿발이 되었다.

그런데 차 앞쪽에서 김이 뿌연게 오르구, 이윽고 차안의 불이 켜져 나는 차를 멈추었다.

차를 다 망친다는 생각이 들었다. 길가 한편으로 몰고 가서 돌을 바퀴에 받치고 열쇠를 잠그고 밖으로 나왔다. 덮개를 쳐들고 모터를 살펴 보았다. 내가 아는 것 이라고는 라디에타 뚜껑을 움직여 보는 것 뿐이었다. 아버지께서 그러시는 걸 여러번 본 일이 있었던 것이다. 뚜껑을 돌리려고 하자 손가락이 타는 것같이 뜨거웠다. 그러나 재빨리 열어 제겼다. 증기와 더운 물이 쉬잇 소리를 내며 좁은 손목을 빠져나가 찬 공기 속에서 흰 구름 기둥을 만들었다.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새로운 불안이 엄습해왔고 눈물이 주루루 두 뺨으로 흘러 내렸다.

지나가는 차들은 속력을 늦추었다는 가고, 행인들도 쳐다보고는 그대로 갔다. 일요일 산보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도 주머니에 손을 꼭집어 넣고 지나가면서 힐끗 쳐다 보고는 했다.

“아이참 어떻게나”라고 울쌍이 되어 이 말만 되풀이하면서 차안으로 기어 들어가 머리를 두손에 파묻고 말았다.

“사람들은 기다릴 것이고 나는 꼼작도 못하고...” 몇분이 지났을 때 어떤 사람 하나가 창문을 푹푹 두드렸다.

“도와 줄까?”

“응 그래” 나는 고마움과 안심이 겹쳐서 고개를 끄덕였다.

십대의 소년이 창문으로 들여다 보고 있었다. 긴 갈색 머리가 눈에까지 내려와 덮고 있었다. 그는 약간 떨고 있

었는데 자주빛 교복 셔타를 입고 가냘픈 손가락을 보이고 있었고 장식이 달린 카우보이 장화를 신고 있는 모습이였다.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알수가 없어, 모타에서 김이 뿜어 나온단 말야”라고 차에서 나가면서 설명을 했다.

그는 구부려서 덮개밑을 보고는 라디에타를 살펴보았다.

“어디 가는 길이니?”라고 그는 물으면서 눈물 자욱이 난 나의 불을 뻔히 들여다 보았다.

“교회에, 합창단에서 합창을 해야 하는데”라고 대답을 했다.

그는 “교회”라는 말에 눈섭을 약간 치뜨더니 웃었다.

“음, 라디에타가 언 것 같아”라고 말하면서 차 덮개 밑을 다시 들여다 보았다.

“물이 나갈 수가 없어서 물이 끓어 넘은거야” 그는 근처를 이리 저리 잠깐 더 살펴 보더니 나를 똑바로 쳐다 보면서 “내 생각에는 담요로 라디에타를 몇분동안 덮어 놓고 물을 갖다 넣으면 다 될것 같아”라고 말했다.

그는 최신형의 번쩍이는 색의 자기 차에서 담요를 가지고 와서 조심스럽게 라디에타와 덮개를 썼다.

“여기서 얼마 안가면 주유소가 있는데 거기 가서 물을 좀 가져올께. 얼마 안걸릴거야”

그는 자기 차에 발동을 걸더니 곧 길을 돌아 사라졌다. 오래되지 않아 그는 돌아와서 강통에 가지고 온 물을 라디에타에다 부었다.

그리고는 내가 시동을 해서 출발하는 것을 지켜보더니 내가 교회에 도착할때 까지 뒤따라왔다. 그러나 교회에 닿자마자 경적을 울리고는 손을 흔들면서 가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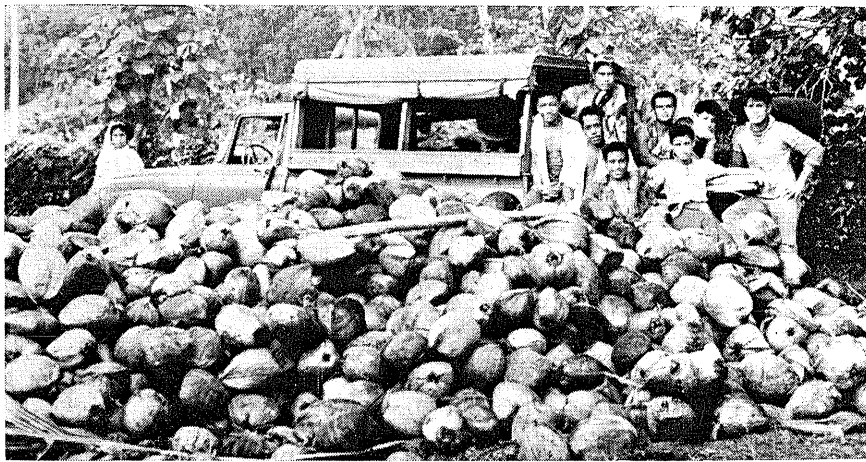
“어이 기다려”라고 소리를 치면서 “아직 고맙다는 말도 못했는데”라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런데 착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어떻게 고맙다고 표시하나?

# 사랑이 이루어 놓은 일

“우리들의 예언자 데이비드 오 벅케이와 사랑과 존경의 본보기인 여러분의 교사 에디윈 엘. 카마우하를 사랑하고 존경할 때면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위해 일하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바로 사모아에 위치한 학교의 여학생들의 표현이다. 그들은 자기 교사 주위에 모여서 자발적으로 벅케이 폭포 주변을 아름답게 꾸며놓았다. 그곳에는 벅케이 대관장님의 이름을 따서 만든 폭포가 있었다. 그곳을 방문한 청남 상향회 감독단 보좌인 조지 알. 힐 이세가 본국에서 낚시판을 보내주었다.

그 소년들은 휴식처에서 연못으로 가는 길을 파 놓았다. 또한 벅케이 폭포로 똑바로 내려가는 길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곳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아름답고 안전하게 정돈해 놓았다. 그곳 소녀들은 타로 감자를 심고 푸르르며 아름다우며 성스러운 곳에 이르는 길에 자디잔 돌을 깔아 예쁘게 단장한 것이었다.



# 두 개종자가 교회를 보다

에드 프로이

우리는 전부터 교회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우리는 그것을 아주 우연히 뉴욕 세계 박람회의 말일성도관에서 보여준 영화를 보고 발견하게 되었다. 나의 아내 로즈앤과 나는 상당한 호기심을 갖게 되었지만 다른 부부들과 같았다. 다른 사람처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질문에 대해 해답을 원하였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형태로서든지 이러한 질문을 갖고 있음을 확실히 느낀다. 대개의 경우 우리 자신처럼 특별히 캐내어 묻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여러번 물었을 것이다.

세계 박람회에서의 영화는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켰다. 박물관을 나온지 약 30분후에, 우리의 주의를 끌었던 문제에 답을 준 영화를 믿을 수 있을까 하고 서로 물어 보았다. 우리는 멧세지—그것은 훌륭한 멧세지였다—를 믿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믿어야 한다고 결심하였다. 우리는 관광 방문객 명부에 싸인을 했고 잇달은 장로의 방문에서 이 교회가 세상에 전하고 있는 멧세지에 관하여 더 많이 알게 되었다. 이리하여 우리는 1964년 9월 19일 침례를 받았다.

이웃에서는 말일성도로서의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우리는 세계주의자들이 주로 사는 고장에 살기 때문에 거의 종교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가입을 숨기지 않았고, 이웃 사람들은 커피 차 담배와 술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는 교회에 자발적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보고 놀랐다. 우리 구역내에서 이러한 네 가지 요소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고 이웃간의 모임이 거의 불가결하게 되어있었으나 이웃 사람들은 우리와 우리의 믿음을 이해해서 지속적인 우정과 관심에 변함이 없었다.

우리는 교회 회원임을 자랑하고 똑같이 교회 회원으로서 마땅히 해야하는 임무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읽고 공부했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위하여 지불한 희생에 대하여 안다. 이것은 가볍게 취급할 수 없는 임무와 목표인 것이다.

감독은 우리가 책임을 수행할 만큼 충분한 강한 간증을 갖게 되었음을 느끼자 곧 직책을 주었다. 나의 아내는 처음에 주일학교 도서책임자로, 후에는 주일학교 서기를 맡아 일했다. 나는 소년단 위원회에서, 주일학교 회장단 그리고 장로정원회 서기로 봉사했다.

교회에 들어온 이래 우리의 생활에는 현저한 변화가 많이 일어났다. 이러한 것들은 아마 우리에게만 현저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중의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전에 알지



못했던 평화와 만족을 찾았다는 것이다. 처음 우리는 회원들과의 대화에서 형제와 자매라는 용어를 마치 못해 사용했다. 그후 영원한 인봉을 위해 신전에 갔을 때 우리는 형제와 자매라는 용어가 진실로 뜻하는 바를 알았다. 그날 신전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다 져혀 놓고 우리 두 이방인을 도왔다.

신전에서 돌아온 두 달후에 나는 심한 심장병을 앓았다. 우리 지부의 형제 자매들은 잔디를 깎아주고 집에 칠을 해주고 집안 일을 도와주며 식사를 마련하는 등 일일이 모든 것을 다 도와주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우리들이 형제애 속에 파묻히는 느낌 그대로였다.

우리의 생각을 또 하나 변하게 한 것이 있었다. 사회가 요구하고 또 필요로 하는 기술교육을 받은 숙련된 사람을 한 분 알고 있었는데 그는 술을 지나치게 좋아해서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처음에 우리는 그를 싫어하고 우리가 참석하는 모임에 그가 오면 원망까지 하였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마음은 다음과 같다는 것이다. 즉 여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어떻게 그를 도울 수 있을까?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였던 것이다.

우리는 또한 기도가 얼마나 효력이 있으며, 특히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도 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교회에 들어온 이래 배웠던 많은 것 중의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책이나 시험관으로 증명될 수 없

는 것이나, 우리는 그것들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 신앙의 참다운 시험은 내가 심장충격을 받았을 때였다. 실제 충격을 받아 누어있을 때 둘이 생각했던 것으로도 알 수 있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몇분 동안 우리는 이야기를 하면서 똑같이 대단히 축복을 많이 받았다는 데 일치하였다. 우리는 영원한 결혼을 했고 만약 우리가 떨어져야만 한다면 그것은 잠깐 동안 일 뿐이라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병원에서는 다른 환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또한 만족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 할 기회가 많았다. 어느날 정규적으로 환자를 방문하는 천주교회 신부는 그가 쏘트레이크시의 신전광장을 방문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는 우리의 선교사 계획과 이러한 전도 사업을 계속하는 남자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어떻게 선택되는지에 대하여 물었다. 그는 모든 선교사들이 선교사로 나가기 위하여 저금을 하며 교회로부터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

교회가 우리의 생활에 가져다 준 의미를 일일이 지적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지금 개종을 해서 기쁨을 누리지만 오랜 동안 몰몬으로 살아온 사람들을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한다.

<에드워드 프로이 형제는 트렌튼(뉴저지주) 지부 도서 책임자로 봉사하다 지난 해 세상을 떠났다.>

## 돈을 벌기 위하여 얼마를 지불하겠는가?

멜빈 엘. (버드) 브레인

인간의 부의 축적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많은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다. 누가 재정적으로 좋은 자리를 얻으려고 가장 친한 친구의 우정을 빌렸다면 그가 돈으로 얼마를 치루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한 사람이 건강을 돈과 바꾼다면 얼마가 될까? 만약 한 사람이 돈을 위하여 여하한 원리라도 희생하게 된다면 이는 곧 보잘 것 없는 상품을 얻는 것이나 다름없다. 많은 지출을 하여 부정확한 수단으로 돈을 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불변하는 선을 행할수 있는 길을 막는 것이다.

금전에 눈이 너무 어두워서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는 것을 볼 수 없게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세계의 전진은 크든 작든간에 무엇보다 진리를 앞세운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다. 우리는 금전만을 추구하여 영원한 축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잘 방어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을 정도로 무모한 정열로 금전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와 결국은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줄 대상에 무엇보다 귀중한 가치를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 특별 부록

## 제 138차 반 연차대회의 말씀

다음에 소개하는 글은 1968년 10월 10일부터 6일까지 있었던 제138차 반 연차대회의 말씀입니다. 2회에 걸쳐 소개하겠습니다.



대회의 각기 다른 순서의 합성사진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  
하는 시민은 전함보다  
강하고 훌륭하다

대관장 데이비드 오. 맥케이

1968년 10월 4일 오전 10시에 솔트 레이크 태버나클에서 있었던 제138차 반 연차대회의 개회순서에서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이 하신 말씀. 그의 아들 로버트 알. 맥케이 대독.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을 대하고 보니 제 마음은 주님의 축복에 대한 깊은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 거룩한 성전에서 맞는 연차 대회에서 교회의 회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큰 특권만큼 큰 감사를 느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 138차 교회 연차대회를 맞아 참석해 주신 여러분과 특별히 방문해 주신 행정계, 교육계, 지도자 여러분과 멀리 혹은 가까이 있는 465개의 스테이크와 81개의 선교부를 대표하여 오신 역원들에게 환영의 뜻을 표하며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대회가 끝날 때까지 주님의 영이 우리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해가 더해 갈수록, 생(生) 그 자체에 대하여 끝없는 경이감을 더욱 크게 느끼며 생이 가져다 주는 기회와 축복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염을 갖게 됩니다.

저는 오늘날까지 제가 받은 축복에 대하여 감사하며 훌륭하신 부모님 슬하에서 현명하고 자상하게 보호를 받고 교육 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보호와 교육, 이 두 가지는 자녀들이 한창 성장해 갈 때 부모가 현명하고 신중하게 적용해야 할 자질입니다. 제가 전혀 다른 형태의 삶으로 귀착하게 되었을 그러한 길에 들어서지 않게 지켜준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신중하시며, 고마우신 어머니와 훌륭하신 아버지께 대한 저의 감사와 사랑은 해가 갈수록 더해 갑니다.

저는, — 지금은 사랑에 찬 추억으로 남아있지만 — 우리집 가정 환경을 이루어 주었던 아홉 형제 자매(그 중 셋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 환경은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었으며, 늘 친절하고 신중하신 부모의 가족 인도에 버금가는 큰 힘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우리의 교육때문에 바치신 희생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통하여, 늘 영감을 불러 일으키며, 일곱 자녀의 어머니이자 현명한 보호자인 동시에 사랑에 찬 제이의 가정의 핵심이 된 제 인생의 반려자도 만났습니다.

저는 교회와 부모님께서 저로 하여금 선교사가 되어 저의 인생행로를 완전히 바꾸게 한 경험을 쌓게 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제 친구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참되고 충실한 우정에서 솟아 나온 영의 평안과 풍성함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제 친구와 참 친지들 생의 가장 값진 재산으로 생각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행복한 삶의 참된 철학인 동시에 모든 복된 것을 성결케 하며 그것들이 근원이 되는 복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전세계에 있는 그의 교회를 축복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의 거룩하신 인도와 영감을 확신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분이 가까이 계시며 신하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또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 시간과 그밖의 것을 바치는 회원들의 충성과 큰 힘을 생각하면 크게 격려가 됩니다. 교회의 회원들이 보

여 주는 것은 어디서나 대개 같게 있기 마련입니다. 십일조와 헌물을 내는 데에 보여준 성의와 교회 건축 계획 및 부지 사업에 제공한 재정적인 도움이야 말로 저에게는 큰 기쁨의 근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생(生)을 사랑합니다. 이 세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기쁨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매일 아침 창가에서 동편에 있는 산을 바라보며, 평범한 가을 날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볼 때나, 검은 구름이 생명을 주는 습기를 한아름 싣고 하늘에 걸려 있는 것을 볼 때 저는 생의 기쁨과 특권을 아니 느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이로운 핵 시대의 과학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의 발견은 우리의 상상을 동요시키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들이 성취되었다는 기사를 읽게 됩니다. 이 경이로운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뿐 아니라 연로한 우리도 연구가 계속됨에 따라 아직 나타나지 않은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학의 발견에서 얻어진 힘 중에서 선에 대한 잠재력이 파괴력을 제압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광스러운 세대입니다. 저는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법에 따라 근면하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물질적으로 아무리 큰 진보가 이루어진다 해도 선의만은 인정된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시대는 한없는 위험과 알려지지 않은 가능성으로 가득차 있는 세대라는 것을 의심치 않고 믿을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가지 상태에 관한 기사를 읽고 알게 될 때 세상에는 참으로 염려하고 경계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범죄가 증가하며 법과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하게 되며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위에 있는 악한 세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의식하지 않아서도 안됩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없애버리려 하며, 완전히 파괴적인 것은 아니지만 정부 형태를 저해하고 약화시키려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 간에 부조화와 투쟁의 씨앗을 뿌린다가, 젊은 세대의 이상을 저하시키고 전복시키려 하는 요소에 둔감할 수도 없으며 그래서 안됩니다. 주님의 계시에 전혀 반대되는 행위나 계획이 나타날 때, 저는 저의 측근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인들에게 경고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제 어린 시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내 영은 불결한 곳에 거하지 않음이라.”는 성구였습니다. 다른 경고의 말씀도 생각이 납니다. 제 소년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옥—든으로 갔을 때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옥—든 강 다리 좁 못 미쳤을 때, 강 북쪽 쪽에 있는 술집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가



결혼 67주년을 맞은 벅케이 자매님의 대회 참석 모습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무대에 섰던 것을 전에 보고 그를 좋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때에는 술에 취해 있었으며, 벌써 여러 해 동안 저런 상태일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본 그는 소리쳐 부르며, 아버지에게 술 좀 더 마시게 50센트만 달라고 했습니다. 다리를 건너 오면서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데이비드야, 네가 방금 본 술이 취한 사람은 전에 나와 함께 신권회를 대표해서 워드 회원들의 집을 방문하곤 했던 사람이라네.” 이 때 아버지께서 제게 하신 말씀은 오로지 이 말씀뿐이었으나, 그것은 방탕의 결과에 대한 날카로운 경고의 말씀이 되어 저는 결코 그것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 선생님 한 분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향해 흘러 내려가는 강 위에서 뱃놀이를 하고 있던 젊은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 옛날 교과서에 들어있는 이 이야기의 저자가 누구며 그 제목이 무엇인지 밝혀낼 수는 없지만, 강 위에 배를 띄우고 술을 마시며 흥이 나서 떠들며 놀고 있던 젊은이들에 대하여 제가 느꼈던 교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변에서 이를 보고 있다가, 이들 앞에 위험이 가로 놓여 있음을 안 어떤 사람이, “여보게 젊은이들, 그 아래 쪽은 급류가 흐르고 있어.”라고 외쳤으나 그들은 그가 한 말을 무시하고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웃고 떠들며 그대로 흘러 내

려갔습니다.

그들이 급류에 좀더 가까이 가게 되자 그 사람은 다시 “여보게들, 바로 밑이 급류란 말일세.”라고 외쳤으나 그들은 역시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들은 급류 속에 휘말려 들어가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력을 다해서 그들의 뱃머리를 돌리려고 하였으나, 이미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비명과 저주로 급류에 휘말려 들었구나.”라고 그 사람은 혼자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어서 그 공과가 끝난 다음에도 그 인상을 지워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주간 신문에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문을 기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오늘날과 같이 경악할 만한 기회와 험악한 사태에 직면해 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생활에 있어서 인품이 오늘날 처럼 결정적으로 약하게 된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날은 12살 난 어린이도 엄청난 잘못이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강한 인품을 소유해야 합니다.

“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들어가는 길은 체질하는 것과 같아서, 제대로 크지 못한 인품이라면 구멍으로 빠져 밑으로 떨어져 버릴 것입니다. 현재 젊은 세대가 범하는 실수는 순적으로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장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세대가 실제로는 가장 방치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청년 사회는 모든 동물 사회와 마찬가지로 순전한 생존 법칙에 거의 다 종속되어 있습니다. 청년은 욕심 많은 독수리, 여우, 기생충, 색꿀, 변질자, 악한, 의식에 찬가, 이념적인 호전 등에 둘러 싸여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이 완전히 성장하기도 전에 부패하는 상황은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에릭 호퍼, 솔트레이크 트리뷴 1968. 6. 16. 일요일) 강변에 서서 “젊은이들, 더 나아가면 위험하오”라고 외치는 것과, 그들이 있는 때까지 배를 저어가서 가능하다면 그들이 탄 배에 뛰어 들어가 친구가 되어서 권유하고, 필요하다면 적당히 힘을 가해서라도 급류에 휩쓸리지 않게 배를 돌리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우리 중에는 강변에 서서 “젊은이, 더 나아가면 위험하오.”하고 외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 우리의 인격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 이 종교에는 어떤 참된 것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합시다. 종교란 생활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며, 다른 어떤 것도 참된 종교 생활만큼 그들을 기쁘고 만족하게 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합시다.

깨끗한 남성은 국가적인 재산이 됩니다. 순결한 여성은 참으로 국가적인 영광의 화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시민은 전함보다 강하고 훌륭합니다. 모든 사회집단의 힘은 순결하고, 깨끗하고, 고결하고, 솔직하며, 의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고, 아무리 적

은 악에도 민감한 그런 사람들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념으로 시민의 표준을 삼으시다. 우리는 대다수의 젊은이들을 신뢰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얼마나 두텁던지 간에, 우리는 범죄자와 소년 범죄 수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감아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도덕적인 면에, 국가의 복리에, 정부의 민주 형태의 영구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합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범죄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가능한 수단을 다 취해야 합니다.

범죄가 증가되는 다른 중요한 원인은 가정의 이상을 저하시키는 데서 옵니다. 결혼한 여성이 자신의 쾌락이나 사회적인 위신 때문에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자녀를 돌보지 않는다면, 이는 여성의 고귀한 특권과 사명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되는 사람이 사업이나 정치나 사회적인 책임때문에 아들이나 딸을 기르는 책임을 아내와 함께 나눌 수 없다면 부부의 의무를 이행치 못하는 것이며, 명랑한 가정 분위기를 이루는데 부정적인 요소가 되며 불화와 범죄를 발생케 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을 사랑과 부드러움으로 대하는 반면에, 아버지는 유용하고 구속력 있는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 아버지 되시는 분들은 모두 자신도 한 때는 못된 젊은이었다는 것을 늘 마음에 기억하고 이해성 있게 아들을 대해 주어야 합니다.

가정은 이 세상에서 인간의 사회 또는 정치생활에서 가장 높은 이상을 즉 다른 사람의 권리와 특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완전한 행동의 자유를 가르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곳입니다. 오늘 날 가정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더욱 깊은 종교성입니다. 부모는 행동이나 말로서 참된 종교의 산물에 깊은 흥미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청년을 보호하는데 있어 가정 다음으로 큰 힘을 발휘하는 곳은 교회입니다.

삶에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힘이 있으며, 그 큰 힘이란 바로 종교입니다. 영적인 발전과 도덕적인 순결은 이 나라 혹은 다른 어떤 나라의 안전과 발전에 기여하게 될 사회를 이룰 모든 사람들의 삶에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칼빈 쿨릿지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의 정부는 결코 국가의 종교를 앞서지 못합니다. 인간이 가치를 법의 권위로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법률과 경찰력에 의하여 악덕을 견제하고 어느 정도의 안정과 보호를 강구할 수는 있으나, 오늘날 이 사회에서 추구하고 있는 참된 개혁은 종교적인 확신의 결과에 따라 오게 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전혀 오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평화, 정의, 인간성, 사랑, 이러한 것들은 법령으로 구체화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의 원리는 유한한 인간에게 가장 확실하고도 안전한 지표가 됩니다. 그리스도는 인류의 빛이 되십니다. 그 빛 속에서 인간은 자기의 길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

빛을 거부할 때 인간의 영혼은 어둠 속을 헤매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이나 단체나 국가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한복음 8:12)고 말씀하신 예수를 따르지 않는다면 참으로 성공을 거둘 수 없습니다.

이 교회의 청년들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부지런히 그를 구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노고에 보상하실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따르고 그와 함께 하면, 여러분은 내부에서부터 나오는 간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그러한 느낌이나 간증은 여러분이 부지런히 구하기만 하면 얻게 될 것입니다. 깨끗하고 고결한 삶을 살도록 하시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활과 행복을 위해 기여하도록 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저의 간증을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 드립니다. 아멘.

## 너희가 나를 사랑할진대 내 계명을 지키라

대관장단 엔. 엘돈 태너

1968년 10월 5일 토요일 아침에 열린 교회 제138차 반 연합대회에서 대관장단의 제이보좌인 엔. 엘돈 태너 사도가 하신 말씀.

저는 오늘 아침 우리의 지도자이신 데이비드 오. 백케이 대관장님이 부르셔서 이 큰 태버나클의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일치하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본 대회를 여는 동안에 이 자리에 서게 되는 우리들은 바울이 디모테인들에게 행하였던 것과 같은 책임을 느낍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배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경계하며 원하라. 배가 가르치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무를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디모데후서 4:2~4)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디모데후서 3:1)

그 말세란 지금 바로 이때를 말하며, 그의 예언은 우리의 눈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건전한 가르침을 거부하며, 자신의 사욕을 좇으며,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좋은 말만 해 주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온갖 시련을 겪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전에 볼 수 없는 가장 까다로운 인류의 역사는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됩니다. 각 분야에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류 사상 심각한 위기의 하나를 제거하지 않고는 현 상태를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다는 것에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에 찬 세상에서 이와같이 괴로운 사태를 생각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의문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세상에는 국가간에 또는 지방 단체간에 것처럼 수많은 투쟁과 증오가 있으며, 이 불안과 불신과 투쟁은 가정에까지 확대되어야 하는가? 어찌해서 그렇게도 보편적인 것이 되었는가? 어떤 사람도 만족하거나 행복할 수 없는 이러한 상태를 무엇으로써 시정할 수 있으며 또 그래야 하는가?”

저는 이런 점에 대하여 생각하다가 대답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경전은 말일의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인류의 복지와 여건에 관한 권고와 경고의 말씀과 예언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세계는 서로 대적하는 양대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유물론적인 생활철학을 가진 개인과 국가로 구성되어 있어서 참된 기독교 생활 태도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배격하고 있습니다.

다른 진영은 영적이며 도덕적인 가치를 세세한 것에 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위 기독교 문명국이라 불리우는 국가군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는 소위 기독교 문명국이라 하는 많은 나라들도 기독교적 신앙을 갖지 못하고,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단 하나의 명백하고 확실한 해결 방법은 우리의 기독교적인 신앙을 참되게 하고 각자의 것으로 하며, 그것을 우리 신앙에 적용하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사도행전 4:12) 하신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인류의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받아 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그의 생을 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과 구원의 계획을 명백하게 하셨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자들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진전한 교리에 따라 살아야 함을 명백히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우리는 왜 여기에 있습니까?”

“죽은 후에도 삶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습니까?”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있습니까?”

“우리가 승영을 얻고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문제에 답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고대와 현대의 예언자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 대하여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의 세계에 있을 때, 아버지께서는 그의 독생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려가자…… 우리는 이들 재료를 취하여 이들이 살게 될 땅을 만들자.”

“이로써 우리는 저들을 시험하여 주 저희 하나님이 저들에게 명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행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자.”(아브라함서 3:24~25)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세기 1:27)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영의 자녀들이며, 그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졌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성을 지니신 분이므로, 그들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한복음 3:16) 하신 말씀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숭엄한 일입니까?

고대와 현대의 경전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다른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에게 그를 소개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마태복음 3:17; 니파이 삼서 11:7; 요셉 스미스서 2:17)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영의 자녀인 우리들은 우리들 내부에 들어있는 신성의 빛으로 해서 그의 계명을 지켜 그와 같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한복음 5:39) 또한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로마서 15:4)

다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요한복음 17:3)

“내가 죽는다면, 내가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예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



1968년 10월 대회에서 대관장의 말씀을 아들 로버트 알. 맥케이가 대독하고 있다.

히 죽지 아니하리니……”(요한복음 11 : 25~2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의 목숨을 버리셨으며 인간이 영원히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우리의 충실하고 절친한 동료인 동시에 주님의 충성된 종인 윌리엄 제이크릿치로우의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 저는 그의 부인과 자녀, 손주들까지도 아주 침착하게 있는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실제로 부활이 있다는데 대한 가르침을 받았으며, 한 가족으로 재결합되리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며, 전전한 교리를 받아 들이려 하지 않고 단지 헛된 것만은 추구하는 사람들의 감정과 그들의 감정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저는 하늘 아버지께 제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부활이 가져다 주는 큰 기쁨과 만족과 확신을 이해하고 알 수 있게 해 줄 수 있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하였습니다.

저는 사이비 지성적인 과학자나 또는 진리를 탐구해야 할 사람이 무모하게도 종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나 한 것 처럼 자처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가르침, 세상의 창조 및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과학적으로 증거할 수 없을진대, 자기들 스스로나 부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복음의 소박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세상의 창조주로 받아들이며 자기가 반박할 수 없는 것들을 신앙으로 받아 들인다면 얼마나 현명하고 훌륭한 일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보다 더 나은 설명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가장 단순한 일 즉, 나무잎의 구조는 어떻게 되었으며, 전기란 무엇이며, 우리의 감정이란 무엇이며, 영은 언제 육체 안으로 들어오며, 영이 육체를 떠날 때는 어떻게 되는가조차도 이해할 수가 없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부정하며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부활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어떻게 부활이란 있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잠언 3 : 5)는 말씀을 듣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찢저!”(이사야 5 : 21)라는 경고도 받습니다.

인간이 인공위성을 만들어 시속 수십만 마일로 지구 주위를 선회시켜, 그 속에서 지구와의 통신이 가능하며 본기 지와의 통신을 계속하는 한 궤도의 조정을 받고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음을 보아 알고 있습니다. 미약한 인간이

달에 관측기를 발사하여, 그 활동을 조정하며 그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스스로 창조하신 지구나 알려진 우주선에 타고 있는 그 자신의 창조물인 인간과의 교통은 불가능하며, 인간이 본기와 계속 접촉하여 대기권에서의 그의 여행을 완전히 마치고 안전하게 되돌아 올 수 있다고 믿는 일이 과연 불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주님께 돌아가기 위하여서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알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가르침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 혹은 생의 영적인 면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실 전에도 지적한 바 있듯이 많은 학교 중에서 특히 대학교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신앙은 비웃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가르침은 교회에 맡겨져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나 단지 적은 수의 부모 혹은 자녀들만이 교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에 참석하는 극소수의 사람들까지도 구세주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언자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진전한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은 인격을 갖추셨으며, 그가 말씀하신대로 우리는 그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종파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와 같이, 몸도 지체도 감정도 없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알고나 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경우에서건 복음의 진리는 우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온에…… 자녀를 가진 양친이 있으면…… 회개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 등의 교리를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죄는 부모의 머리에 머물러 있느니라.”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 가르쳐야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68 : 25, 28) 부모가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주님께서서는 그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말에도 지혜의 말씀과 같은 것으로 알려진 계시가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세상에 알려 졌습니다. 그 말씀은 담배와 강한 음료의 사용을 금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지킬 것을 잊지만 않는다면, 운전사들이 술에 만취하여 야기되는 수천의 자동차 사고도 발생되지 않을 것이며, 도로상에서 차에 치어 죽게 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술로 인한 알콜 중독이나 범죄나 가정 파탄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흡연으로 인한 폐암이나 다른 질병으로 죽게 되거나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계시 가운데에서 우리는 또한 이러한 약속을 받습니다.

“무릇 이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고 행하며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는 모든 성도는 배꼽에 건강을 얻으며 뼈에 골수를 얻으리라.”

또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와 감추인 보화까지 찾으리니 달려도 피곤치 아니하며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

나 주는 저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노니, 곧 멸망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한 것 같이 저들을 지나치며 살해하지 아니하리라.”(교리와 성약 89 : 18~21)

부모가 되는 우리들은 세상적인 일에 너무 몰두하여, 우리의 자녀에게 모범과 교훈으로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는데 실패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세주이시며 그의 생명을 버리시어 우리가 부활할 수 있게 하심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기도를 가지며,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인격을 갖추신 하나님에게 은밀히 기도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만일 모든 부모들이 주께 가정의 밤을 가져서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훌륭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율법안에서의 위대한 계명!”이라고 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살기만 한다면 모든 인간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거할 수 있는 지상의 천국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태복음 22 : 37~40)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한복음 14 : 15)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도적질하지도, 살인하지도, 간음하지도 또는 거짓 증거나 그밖의 우리의 이웃에게 해로운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믿고,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하여 복음의 율법과 의식을 순종함으로써 모든 인간은 구원 받을 수 있음을 진실로 말하고,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하여 회개하고 침례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사는 사람에게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참되다는 것을 간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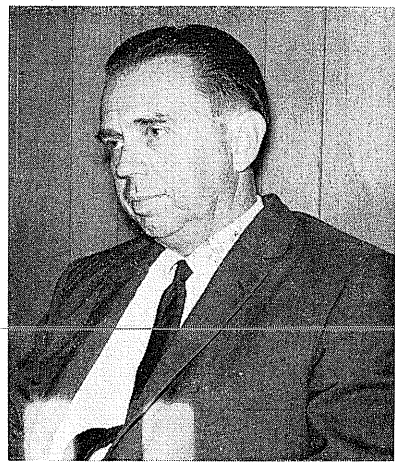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1968년도 역사의 수레바퀴와 함께 지나갔습니다. 또 다른 해를 장식해야 할 시점에서 말일성도라면 누구나 조용한 희열을 맛볼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각자의 가슴 속에 젖어드는 화평과 고요한 마음으로 깊은 만족을 느끼실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재를 세계 평화를 요원한 거리에 두고 보아야만 하는 시련기라 하여도 과언은 아닙니다. 공산주의의 부단한 위협을 지척에 두고 있으며 군인은 물론 공무원이나 일반 시민에 이르기 까지 모두가 자유를 위협하는 요소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월남에서는 미군과 한국군이 어깨를 마주대고 성스러운 목적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치열한 전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우리를 대신하여 귀중한 시간을 바치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는다면 우리들은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위에 열거한 어려움 이외에도 우리를 걱정케 하는 문제는 너무도 많습니다. 순결을 지킨다든가, 금주를 한다는 이야기가 한낱 웃웃운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경제 안정도 낙관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고나 전염병, 각양각색의 위협이 우리들의 주변을 맴돌고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폭풍우가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견디기 힘든 환난과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말일성도의 회원은 새로운 희망과 확고 부동한 목적 의식을 갖고 일사불란의 평온한 마음으로 새 해를 마지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무엇이 생활의 위협 내지는 공포와 맞싸울 힘의 근원이 되겠습니까? 저의 생각으로는 이를 두 가지로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정확한 지식 이요, 둘째는 정확한 생활입니다. 우리들은 각자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왜 이곳에 있으며, 또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일성도는 교회의 표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



르침을 매일의 생활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는 의로운 삶을 보상으로 안겨다 줍니다. 말일성도라고 해서 모두가 완전한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교회의 가르침에 좇아 살려는 의지에 가득찬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의로운 사람의 대열에 끼일 수 있다는 사실만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다운 말일성도가 되면 첫째, 복음의 가르침에 따르겠다는 의욕에 불탈 때 생기는 조용한 내적인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생활에 있어서의 희열, 셋째, 선을 행하겠다는 적극적인 힘. 넷째,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투쟁과 환란의 세상에서 신년을 맞는 우리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가까운 거리에서 생활하여 위에 말씀드린 요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의 말일성도 한분 한분이 앞에 펼쳐진 일 년의 나날을 새로운 노력과 각오로 매진하여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말일성도가 되 주시기를 저희 선교부장단에서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같은 길에서 노력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힘과 능력이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분 한분에게 복된 일년이 되기를 바라고 장차 아버지의 왕국에서 영원토록 발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염원하는 바입니다.

1969년 1월 1일

복음안에서 여러분과 같이하는  
선교부장 로버트 에이취. 슬로버  
로즈매리 떠블유. 슬로버  
제1보좌 이 호 남  
제2보좌 어스키 부르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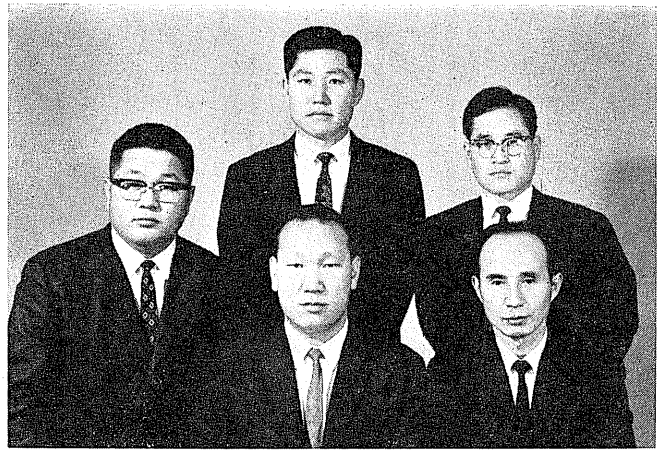
# 새 해, 새 출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 이제 희망의 새해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지난 해에 이루어 놓지 못한 일로 인해 실망치 말고 새 힘과 새 결심으로 새해의 첫 발을 힘차게 내어 던져 봅시다. 이 한 해에는 한 발 한발을 조심하여 실수 없이 바른 길을 걸어 이 해의 결실을 건우어 드리는 수확의 때에 후회함이 없도록 힘써봅시다. 너무나 욕심 내어 단번에 많은 것을 얻으려 하거나 방심하여 탈선하지 않도록 조심하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아버지께 향한 길로 서서히 그러나 힘차고 정확하게 나아가 봅시다. “나의 제명에 따라 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서 이 땅에 올라온 자들은 복이 있도다.”(교성 59:1) 우리가 방심할 때 사탄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작용하게 됩니다. 우리의 결심을 흐리게 하고 의와 선을 따르려는 우리의 양심을 무디게 합니다. 조그마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로 하여금 악과 타협하게 하고 결국엔 악에 말려 들게합니다.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여 성령의 힘으로 이것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행 하는 모든 일을 주와 의논할지니 주께서 너희를 선으로 인도하겠음이라. 네가 밤에 누울 때 주님과 함께 하면 잠자고 있는 동안 주께서 너희를 보살피 주실 것이라. 아침에 일어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너희 마음을 가득차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할진대 마지막 날에 높이 들리우리라.”(엘마서 37:37)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묵었던 모든 실수와 결점과 약점을 모두 다 청산하고 무겁고 어두운 마음으로부터 해방되어 저 동녘에서 힘차게 솟아오르는 붉은 태양과 같이 밝고 희망에 찬 새 결심과 새 마음으로 이 새해를 우리 다 함께 힘차게 출발해 봅시다. 또 한 늘 깨어 기도 함으로써 만사를 주님과 의논하는



여러분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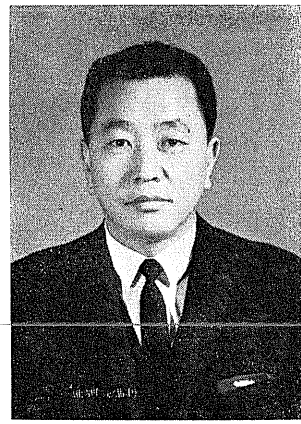
“그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졸며 잠에 빠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니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마태복음 25:1~13)

주께서 오시는 그날을 위해 부지런히 준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에 주님의 크신 보상이 있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새해의 인사로 드립니다.

1969년 1월 1일

지방부장	차	중	환
제1보좌	박	재	암
제2보좌	민	경	욱
서기	황	중	섭
	구	중	식

# 믿음은 실천을 동반하여야 한다



사도 바울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믿음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히브리서 11:1)

수많은 경전을 통하여 믿음이라는 낱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주된 의미는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충분히 확신을 가지고 이들에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만약 신뢰가 무조건으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설혹 인간이 가진 보통 감각으로서는 명확히 알 수 없으며 또한 설명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하등의 의심도 없이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념과 믿음을 같은 의미의 낱말이라고 간주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두 낱말을 전연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였기에 많은 성구에는 신념과 믿음을 교대로 써 왔습니다. 그러나 신념과 믿음은 각각 특유한 의미가 있으니 신념은 그 일반이 인정한 의미의 하나로서는 단순히 지식상의 승인이란 의미도 되지만 믿음에는 필연코 행동에 표현되지 않고는 안될 확신이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신념은 진리 또는 무엇인가가 실존하고 있음을 정신적으로 동의한 것이지만 이로 인하여 책임이라는 도덕적 요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책임이란 도덕적 요소가 그 의미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신념은 어떠한 의미로서 수동적으로 단순히 동의 승인하는 것에 반하여 믿음은 행동적, 적극적이고 꼭 행동으로서 표현하지 않으면 안될 신뢰와 확신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신념없이 믿음을 가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신념이 있으나 아직 믿음이 결합되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즉 믿음이란 생생한 것이며 활기있게 살아있는 신념입니다.

가버나움의 교회에서 더러워진 영(귀신)은 두려움에 떨며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누구인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마가 1:24)라고 외치며 그리스도에게 그의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기를 탄원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한 때 예루살렘, 두로, 시돈 등지에서 온 많은 무리와 함께 하실때 그 중에 더러워진 영(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더러워진 영(귀신)들은 예수를 보자마자 엎드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마가 3:8~11)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들 사탄의 종들보다도 더 솔직하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공언하고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우리 전원을 제외하고저 합니다.). 사탄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와 같이 알고 있음에 불구하고 역시 여

전히 사탄입니다.

신념도 우수한 실질상의 지식도 다 함께 구원에는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믿음이 아닙니다. 만약에 신념이 지혜로서 생긴다면 믿음은 정에서 생긴다 할 수 있겠습니까. 신념은 이성에서 기인되고 믿음은 주로 직관위에 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믿음은 불완전하게 “안다”는 것이며 완전히 알수록 믿음은 없어질 것이며 지금은 믿음으로 인하여 보행하고 있으나, 언젠가는 “안다”는 사실에 확실한 빛으로 인하여 보행하리라고들 합니다. 어떠한 의미로서는 사실이지만 “안다”는 사실은 믿음이 없는 신념과 같이 선한 일을 조금도 하지 않고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귀신의 고백은 귀신이 이를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귀신이 위대한 진리는 “안다”하더라도 이 사실은 귀신의 성질 혹은 본질을 조금도 변화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어느 대 도시에 코페라 병이 유행하자 어느 유명한 과학자가 화학적인 실험과 현미경적인 실험을 행하여 그 도시의 수도물은 병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병이 유행하였다고 자신만만하게 증명하였습니다. 이 과학자는 모든 도시에 사실을 설명하고 물을 끓여 마시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시민은 이 말을 믿고 이를 이행하였으며 그후 코페라로 인한 희생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때 시민들의 믿음은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였습니다. 과학자는 많은 생명을 구하는 길은 “안다”는 것입니다. 얼마후 이 과학자는 사소한 망과 실수로서 살균하지 않은 냉수를 마시고 결국은 희생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과학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명하지는 못했습니다.

단순히 “안다”는 것만이 지혜는 아닙니다. “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활용하여서만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1969년을 맞이하면서 금년에는 믿음과 실행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면서 물몬다운 실행가들이 되어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1961년 1월 1일

지방부장	배	영	천
제1보좌	이	반	수
제2보좌	도	길	회
서기	박	원	철

\*

리차드 엘. 이반스

진리의 말씀

결혼은 예식 이상의 것

윌리엄 라이온 펠프스가 자기가 사랑하는 학생으로부터 약혼을 알리는 편지에 관하여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단한 결혼식은 못 될 것이 뻔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훌륭한 결혼이 될 것입니다.” ① 너무도 간단한 사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대로 간과해 버리는 사실을 피력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혼은 예식 이상의 어떤 것, 비교도 안 되는 그 무엇입니다. 결혼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필연적으로 알아야 될 사실의 하나는 결혼 생활이란 매일 매일의 의무, 일상적인 일, 책임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불완전한 두 사람의 관계이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상대방에 충실해야 하며 공통의 생각이나 공통의 확신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길고 영원한 의무나 소명에 비추어 결혼을 성공으로 이끌어야 할 채무를 부단한 노력으로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술은 모든 기술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다.” ②고 펠프스 박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언쟁이나 의견 대립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지만, 중요한 문제는 그것이 그대로 계속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 두 개의 서로 다른 개성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 일하는 것” ③이라고 템플 베일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별을 쳐다보며 행복을 추구한다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의 이상을 세워 그를 위해 매진해야 합니다. 불가능한 미래에 이루어질 불가능의 환상은 일찌기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알맞는 꿈을 선택하여 매일의 생활에 맞추어 가야 합니다.” ④ “이혼은 곧 실패입니다.” ⑤ “가장 훌륭한 목표는 결혼 자체의 성공입니다.” ⑥라고 저명한 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이란 불완전한 두 사람의 관계이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상대방에 충실해야 하며 공통의 생각이나 공통의 확신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길고 영원한 의무나 소명에 비추어 결혼을 성공으로 이끌어야 할 채무를 부단한 노력으로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이란 예식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결혼이란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 때 아름답고 성스러운 것입니다.” ⑦

- ① 매리암 라이온 펠프스박사. 작자 미상의 글에서 인용
- ② 매리암 라이온 펠프스박사 “결혼은 여러분 스스로가 만드는 것”
- ③ 템플 베일리 “꿈을 실현시키는 신부” 주부통신 1912년 6월호
- ④ 폴 포우프노우박사 “여러분의 결혼생활은 노력으로” 주부통신 1942년 6월호

이 말씀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5분부터 600키로 싸이클의 서울중앙 방송국 제 2 방송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AFKN(미군 방송)에서도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5분부터 방송되고 있습니다.